

<시나리오 06>

검은 집

원작 기시 유스케의 <검은 집>
시나리오 이 영 중

주요 등장인물

주요 등장인물

- 전준오(남/30초) 보험사정업무를 맡은 청년. 보험살인과 관련된 끔찍한 공포의 한복판에 선다.
- 장민아(여/20후) 소아과 의사. 준오의 애인.
- 박총배(남/30중) 자식을 죽이고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준오를 압박하는 공포스런 남자.
- 신이화(여/30중) 총배의 아내. 보험금 때문에 자식도 잃고, 살해될 위기에 놓인 불행한 여인.
- 남과장(남/40후) 준오의 상사. 냉철한 보험업무의 베테랑.
- 한승규(남/30중) 심리학과 조교수. 개인적인 욕심으로 총배의 뒤를 쫓는다.
- 오형사(남/40중) 진중한 성격의 강력계 형사.

이경민

#1. 어느 공간 (D)

어느 넓고 어두운 방.

아이의 방인 듯, 영어단어가 쓰인 카드와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들이 무질서하게 벽에 붙어있다.

방 한가운데, 7세 가량의 소년 - 보훈이 천장에 매달린 뽀로로 인형을 향해 손을 뻗고 있다.

손이 닿지 않는 높이... 보훈이 바퀴달린 의자를 가져와 올리선다.

다시 손을 내뻗는 보훈. 인형이 닿을락 말락한다.

보훈이 발뒤꿈치를 들면, 의자가 흔들흔들, 불안하게 움직인다.

손끝에 부딪혀 흔들거리는 인형. 보훈의 커다란 눈이 인형을 안타깝게 쫓는다.

그런 보훈의 목에, 올라미가 걸려있다.

올가미의 줄은 형광등을 거쳐 열려진 소년의 방문 너머, 어둠으로 향해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휘파람 소리...

‘어젯밤 꿈 속에... 나는 나는 날개달고’ 동요의 음조다.

인형이 잡히지 않자 초조해진 보훈. 점프를 시작한다. 보훈이 착지 할 때마다 의자가 불안하게 흔들린다.

잡힐 듯 한 인형은 잡히지 않고, 보훈은 더욱더 높이 점프한다.

결국 보훈의 손이 인형을 낚아챈다. 하지만 동시에 의자가 튕겨나간다.

목이 졸리는 기괴한 신음소리가 방을 울린다. 바닥에 떨어지는 인형.

형광등이 부서진 듯 불빛이 깜박이는 방 안.

화면은 벽에 걸린 보훈의 그림을 비춘다.

왔다갔다, 움직이는 보훈의 그림자 사이로...

검게 칠해진 집 - 검은 집의 모습이 보인다.

타이틀 - 검은 집

#2. 거리 (D)

차가운 인상을 주는 도시의 풍광 속을 달리는 자동차.

운전대를 잡은 준오, 말끔한 양복차림에 침착한 인상이다.

신호대기를 하는 준오.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뜬다. ‘민아’로부터 온 문자다.

‘첫 출근 축하해! ♡’

싱긋 미소 짓는 준오, 시선이 룸미러에 매달린 액자로 향한다.

준오와 민아가 나란히 서서 밝게 웃는 사진이 있다.

그때 신호가 바뀌었는지, 뒤에서 차들의 클락손 소리가 시끄럽다.
준오의 차가 부드럽게 움직인다.

#3. 건물 외경 - 지하 주차장 - 엘리베이터 (D)

- 대보생명 건물로 들어가는 준오의 차.
- 지하주차장, 준오가 시계를 보며 달리고 있다.
좁은 엘리베이터로 복적이며 타는 사람들. 준오도 간신히 끼어든다.
그때 준오를 따라 뛰어드는 한명의 여자.
여자가 타자, 중량초과 경고음이 울린다. 하지만 여자는 모른 척 버티는데....

소리 좀 내리시다!

짜증난 목소리들. 하지만 여자는 몸을 옆으로 슬쩍 피하며 길을 터준다. 준오의 앞으로 트이는 길.
다시 들리는 웅성거림.

소리 아유, 좀 내려요!

뻘뻘한 여자를 슬쩍 한번 쳐다본 준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다.
시계를 보며 계단을 향해 뛰는 준오. 지하2층으로 표시된 계단을 오른다.

#4. 지정 입구 (D)

얼굴이 땀에 젖은 준오가 계단을 오르고 있다.
5층 계단입구를 나서면, '대보생명'이란 간판이 붙은 사무실이 보인다.
땀을 닦고 옷 매무새를 바로잡는 준오.

#5. 지정 (D)

들어오는 전준오. 사무실 정면에 붙은 시계는 9시 정각이다. 안도의 한숨. 발그레한 준오의 얼굴을 창구의 여직원들이 흘끔댄다. 호기심어린 시선이다.

태연 어떻게 오셨어요?

돌아보면, 엘리베이터의 암체여자 태연이 서있다.
준오의 얼굴을 알아보고, 난처한 얼굴이 되는 태연.

준오 보전팀에 발령받은 전준오입니다.
태연 아 예... 이쪽으로 오세요.

태연을 따르며 사무실 내부를 둘러보는 준오. 은행과 비슷한 구조. 한쪽에는 고객을 상담하는 창구가 있고, 창구 뒤편으로 실무를 처리하는 책상들이 놓여있다. 창구에서 떨어진 구석진 곳으로 준오를 안내하는 태연. 깔끔하게 정돈된 빈자리가 드러난다.

태연 일하시다 더 필요하신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준오 덕분에 운동 좀 했습니다.

태연이 민망한 얼굴로 돌아선다. 슬며시 미소 짓는 준오.
자리에 앉으면, 책상 위에는 서류철과 명찰이 놓여있다.
명찰을 집는 준오.

#6. 병원 (D)

응급차가 요란하게 한쪽에 멈추면, 들것에 실린 남자가 간호사와 함께 응급실로 실려간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준오. 응급실 근처, 병원 입구에 서있다.
명찰을 달고, 한 손에 비타민음료 박스를 든 모습이다.
준오의 맞은편에는 명찰 때문에 곱지 않은 시선을 던지는 한무리의 환자들이 있다. 몇몇이 캔 맥주를 든, 속칭 나이롱 환자들이다. 그들과 묵묵히 시선을 교환하는 준오.
그때 한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입구로 들어선다.

남과장 (준오를 향해) 전준오?
준오 안녕하세요. 남상수 과장님이시죠?
남과장 거 명찰 좀 떼.
준오 못 알아보실까봐요. (상해진단서를 내밀며) 여기 서류 가져왔습니다.

서류를 받으며 준오를 빈틈없는 눈으로 훑는 남과장, 병원 안으로 들어간다.
탄탄한 몸집, 힘있는 걸음걸이... 준오가 명찰을 떼며 그 뒤를 따른다.

#7. 복도 - 입원실 (D)

병원 계단을 오르는 준오와 남과장.

남과장 전에 은행다녔다며?
 준오 3년 좀 다닌 것 같습니다.
 남과장 그럼 돈 계산 잘 하겠구만. 보험 사정이란 것도 일종의 돈 계산이야. 죽은 사람,
 다친 사람 놓고 돈 줄까 말까 주면 얼마나 줄까 그런거 계산하는 거지. (서류를
 흔들며) 이거 좀 읽어봤어?
 준오 환자가 120일 마다 병명을 바꾸고 있네요.
 남과장 그래. 입원 급부금은 계속 타먹어야겠는데 약관상 같은 질병으로 120일 이상 입
 원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말이 고객이지 뺨 사기꾼이야.
 준오 하지만 병원이 환자랑 짜지 않고서야..
 남과장 (복도 끝에 있는 의사를 노려보며) 다 배꼽 맞추고 노는거지.

커피를 마시던 의사가 남과장의 시선을 피한다.
 남과장이 거침없이 어느 입원실로 들어간다.

#8. 입원실 (D)

문을 열어젖히며 소리치는 남과장.

남과장 강기태씨 좀 어떻게습니까?

고개를 돌려 쳐다보는 환자. 흉터가 있는 형상긋은 얼굴...
 하지만 흉터남은 옆에 있던 남자의 어깨를 잘해보라는 듯, 툭 치고 병실을 나간다.
 옆에 있던 남자 - 선량한 인상의 강기태가 돌아본다. - ..

강기태 (긴장한) ...무슨일이쇼?

남과장이 강기태 앞으로 누런 봉투 하나를 툭 놓는다.

남과장 길게 말 안하겠습니다. 이거 보험계약 해지 동의서요. 싸인하면 그동안 낸 보험
 료는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강기태 해지? 이 사람들이...가입시킬 때는 온갖 알랑방구를 다 꿰더니 이제 와서 맘대
 로 계약을 해지해?

강기태, 욕박은 지르지만 왠지 자신 없는 목소리다.

준오는 한쪽 탁자 위에 비타민 박스를 놓다, 강기태의 핸드폰 줄에 달린 가족사진을 본다.

남과장 왜 120일 마다 병명이 바뀌는 겁니까?
강기태 아픈 것도 잘못이요? 의사도 아프다 하잖아요?
남과장 (신랄하게 변하는 말투) 그래서 이 병원으로 온 겁니까? 집에서 가까운 병원 다
 놔두고 여기까지 와서 입원하는 이유가 그거구만?
강기태 (주눅 들며) 의사한테 물어보쇼. 난 그냥 아픈걸 아프다고 말하는 거니깐.... 여튼
 간에 난 싸인.. 그 딱거 안 할테니까 어디 함 법대로 해보자고!

이 사람이... 눈에 힘들어가는 남과장. 그때 준오가 조심스럽게 끼어든다.

준오 저.. 옆에 계시던 분이 그렇게 말하라고 시키던가요?
강기태 (경계) ...누구쇼?
준오 (대꾸없이) 서류를 보니까 사고 당시 차 뒤쪽이 완전히 찌그러졌네요. 선생님은
 일부러 사고를 낸 게 아닙니다.
강기태 그럼 일부러 사고를 내는 놈도 있소?
준오 있습니다. 아까 옆에 있던 분처럼요. 그 분은 분명히 가벼운 접촉사고로 들어왔
 을겁니다.
강기태 (다소 당황).....
준오 하지만 나중엔 선생님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족들도 병원에 찾아오는 횟수가
 점점 뜸해지구요.

눈빛이 떨리는 강기태. 뭐라고 말을 하려하지만 입에서만 맴도는 듯 하다.

준오 저도 해봐서 압니다. 택시운전해서 먹고살기 힘들죠.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아버
 지와 입원비 타내려고 일부러 병원에 누워있는 아버지 중에 어느쪽이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강기태 (간신히 입을 여는) 다..당신이 뭘 안다고 남의 집까지..
남과장 (남과장, 그만 됐다는 듯) 동의서 놓고 갈테니 잘 생각해보쇼. 내일 또 연락드리
 리다.

남과장, 준오를 이끌고 병실을 나선다.

#9. 거리(D)

준오가 운전을 하고 조수석에 남과장이 앉아있다.

준오 죄송합니다. 괜히 나선 것 같네요.
남과장 아냐. 양심을 건드리는 건 괜찮았어. 효과는 없겠지만.

준오 그래도 그 정도 말하면 알아듣지 않을까요?

남과장, '되지도 않는 소리'라는 듯 꺾꺾 웃음을 흘린다.

남과장 택시운전 그거 진짜야?

준오 예전에 돈 없을 때 잠깐씩 뛰었습니다.

남과장 근데 왜 그렇게 순진해? 여기서 절대 그런 티 내지마.

#10. 지점 (D)

창구에서 손님과 상담하는 태연의 모습.

회의실 창문으로 왔다 갔다 하며 전화를 하는 남과장의 모습도 보인다.

준오, 책상 위 서류를 편다. 퍼자마자 드러나는 잔혹한 시신 사진들. 살해당한 듯 하다.

굳은 얼굴의 준오, 한 장 두장 넘겨보는데....

그때 날카로운 전화벨이 울린다.

태연이 준오에게 받으라는 싸인을 하고 있다. 표정이 심각하다.

준오 (전화를 받으며) 예. 전화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간 들리는 숨소리.

여자 ...자살하는 경우 보험금이 나오나요?

말의 무게에 머뭇하는 준오. 하지만 침착하게 매뉴얼을 꺼낸다.

<고객이 자살과 관련된 보험사항을 문의 할 때> 라고 쓰여있는 페이지가 펼쳐진다.

준오 어느 분이 돌아가셨습니까?

하지만 대답 없는 여자.

준오 보험증권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자 지급할 수 없는 경우라면..

준오 가입한지 2년 이내의 자살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족의 생활보장이라는 보험의 취지 때문에 자살을 해도 보험금은 지급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생명보험이 자살을 조장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유예기간 2년을 둔 것

입니다.

침묵하는 상대.

준오 (상대의 숨소리에 집중하며) 증권번호나 주민번호를 알려주시면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수화기를 바짝 댄 채 동정을 살피는 준오. 키보드를 토닥거리는 손가락... 긴장감이 증폭된다.
- 짧은 한숨... 여자가 수화기를 내려 놓으려고 한다.

준오 (다급한) 잠시만요!!!

- 다시 수화기를 귀에 댄 여자.
- 목소리를 높인 준오, 멀리 태연의 걱정스런 시선을 느낀다.

준오 (목소리를 낮추며) 혹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시는 겁니까?

대답하지 않는 상대.

준오 (표정이 태연 쪽에 보이지 않게 자세를 바꾸며) 괜한 참견일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분명 목숨을 끊으면 가족은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에게서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남게 됩니다. 보험회사 직원이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가족의 죽음을 지켜본 입장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여자 누가 돌아가셨죠?

<Ins>

옥상 문을 열려는 이미지. 끼이익 기괴한 소리를 내며 문 너머 저쪽의 모습이 드러나려는 순간,

* * *

준오 (힘들게) 동생이.... 어렸을때...

여자 어째서요?

준오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모양입니다.

준오의 말을 곱씹듯, 한동안 침묵하는 여자.

여자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준오 전준오입니다.
여자 고마워요.

그대로 끊어지는 전화. 멍하니 전화기를 든 준오. 여운이 가시지 않는 듯 하다.

책상에 놓인 매뉴얼.

아래쪽에 경고 문구처럼 붉은 글씨로 '절대로 상대방 개인의 정보를 이야기하거나, 동정심을 표현해 서는 안 된다'라고 쓰여있다.

#11. 준오의 아파트 입구(N)

밝은 아파트 앞에 멈추는 준오의 차.

#12. 복도 - 준오의 아파트(N)

복도를 걸어오는 준오. 아파트 현관에 서서 열쇠를 꺼낸다.

불을 켜는 준오.

탁자 위에 케익이 놓여있고 와인병과 잔 두개가 놓여있다.

바닥에 놓인 책, 표지에 깔끔한 양복 차림의 남과장의 사진이 나와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의를 잃지 마라'란 제목의 책이다.

주방에는 뭔가 하려다 만 듯 야채와 계란등이 놓여있다.

침실을 살피는 준오.

깊이 잠든 민아가 보인다.

문간에 기대 민아의 얼굴을 물끄러미,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준오.

주방으로 향하는 준오. 주방엔 식재료들 사이에 종이 한 장이 놓여있다. 인터넷에서 프린트 한 요리 매뉴얼이다.

준오 새우 라이스 볼...?

준오 대충 읽어보더니 당근을 도마에 놓고 툭툭 툭툭 썰기 시작한다. 자취생활을 오래한 듯 숙련된 솜씨다. 그때 준오의 몸에 감겨오는 민아의 손. 어느새 준오의 뒤로 다가와 안고있다.

준오 올거면 미리 말을 하지.

민아 놀래켜줄라고 했지.

준오 코 고는 소리로?

민아 (웃음) 그거 냐 뒤. 그냥 케익이나 먹자.

준오 왜?
민아 너무 오래 걸려.
준오 네가 하면 그렇지.. 자... 아채를 썰어서 올리브 기름에...

그때 민아의 핸드폰에 문자수신 소리가 들린다.

민아 ...10시까지 병원 들어가야돼.

준오, 썰던 것을 멈춘다. 돌아보는 준오의 얼굴, 아쉬움이 배어있다.

민아 미안해 첫 출근인데..
준오 어쩌나...케익 먹을 시간도 없겠는데?

준오, 그대로 민아를 들춰 안고 침대로 향한다.
금붕어 어항 뒤로, 침대에 포개지는 두 사람의 모습이 따스롭게 보인다.

#13. 병실 (D)

창밖을 보며 치실로 이빨을 소제하는 남자가 보인다.
떡 벌어진 어깨에 단단한 체구,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잔뜩 겁먹은 눈. 떨리는 손으로 동 의서 에 싸인을 하는 강기태.
서류 너머로 찹찹 소리를 내며 모은 이 물질을 바닥에 뺨는 남자.
싸인을 하자마자 빼앗듯이 동 의서 를 집어 드는 그는 험악한 인상의 마용식이다.
혀로 이빨을 훑으며 동 의서 를 살피는 용식.
준오가 병실 문간에 서서 그 모습을 보고있다.

#14. 회의실 (D)

간이 재떨이가 놓인 커다란 회의실.
남과장이 동 의서 를 읽어보고 있다. 준오의 얼굴은 침통하다.

남과장 동 의서 를 받지 못하면 재판을 해야 하는데, 환자가 병원이랑 한통속이란걸 증명 하기가 보통 힘든게 아냐. 그러다보니 이런저런 방법도 쓰는거지.

준오 하지만 회사가 개인을 상대로 그런 불법적인..

남과장 그럼 누가 자네 등쳐먹겠다고 달려드는데, 자네는 웃으면서 그러지 마십쇼, 타이 르기만 할 건가? 별 미친놈들 많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당하는거야. 알겠 어?

준오알겠습니다.

남과장, 서류 하나를 내놓는다.

남과장 수금하는 생활설계사 태도가 안 좋구나 뭐라나 불안사항이 있다고 집에 와달래. 그런데 자네가 와줬으면 한다고 했다두만.

준오 (서류를 보며) 절요? 모르는 사람인데요?

남과장 뭐... 어떻게 알았나보지. 청진동이면 자네 집에서 가깝잖아. 들렀다 일찍 퇴근해.

준오, 서류를 들여다본다.

보험가입자란에 '박충배'라고 쓰여있다.

#15. 동네어귀 (D)

허름한 건물들로 이루어진 동네 한쪽, 구멍가게가 보인다.

주스 상자 하나를 집어 계산대 위에 놓는 준오. 주인 할머니가 주소가 적힌 종이를 살핀다.

할머니 (돈보기를 곧추 세우며) 43호면... 목간집인가봐.

준오 목욕탕말인가요?

할머니 전에 목간이 있던 자리에 생긴 집이라 다들 목간집 목간집 하는고만. (호기심 어린) 근디 거긴 원 일로 가는겨?

준오 (돈을 내밀며) 고맙습니다...영수증 주세요.

할머니 갈 때 기차 조심혀. 차단기 고장났으니까.

#16. 동네어귀 - 충배의 집 (D)

- 기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나간다. 하지만 차단기는 내려와 있지 않다. 기찻길 너머에 공중전화 부스가 보이고, 그 뒤쪽으로 음습한 인상의 골목이 보인다.

- 골목 안쪽으로 들어오는 준오.

준오의 눈 앞에 거무튀튀한 느낌의 낡은 집이 서있다.

명패 <박충배>를 확인하고 인터폰을 누른다. 하지만 인터폰은 작동하지 않고...

벌어진 대문 안쪽을 살피면, 전혀 관리되지 않은 황폐한 마당이 보인다.

집주인이 원가 돈벌이를 하는 듯 한쪽에 유압식 절단기가 있고, 쌓인 철판과 만들다 만 연통, 닥트 등이 놓여있다. 다른 한쪽에는 쓰러진 세발자전거, 냉장고등의 물건들이 녹슨 채 방치되어 괴기스런 풍경을 연출한다.

대문을 조금 열며 들어가려 할 때, 요란하게 개 짖는 소리. 개집에서 튀어나온 도사견이 준오를 향

해 죽일 듯이 찾아댄다.

그런 준오의 뒤에 다가온 그림자...

박충배 누구신가?

준오 (깜짝 놀라지만, 정중하게) 대보생명에서 나온 전준오라고 합니다.

박충배 아. 왔구만.... 들어오시게.

음험한 인상의 박충배, 준오를 슬쩍 살피더니 찾아대는 도사건 쪽으로 간다. 준오가 충배를 따른다. 준오의 눈에 충배의 한손에 끼워져 있는 흰 목장갑이 눈에 띈다. 손에 신문에 싸인 원기를 들고 있다.

박충배 아이고 우리 순돌이.... 아빠 없어서 심심했구나 (손을 도사건 머리 위로 내밀며) 점꾸!!! 점꾸!!! 박순돌 점꾸!!

그러자 충배가 내민 손을 향해 열심히 점프를 하는 도사건.

이뻐 죽겠다는 듯 도사건을 껴안는 충배. 개의 혀가 충배의 얼굴을 마구 핥는다.

박충배 순돌이 이놈이 사나와 보여도 애비밖에 모르는 놈이야. 이놈이...

마치 아들을 사랑하는 듯한 모습의 충배.

신문지를 펴고, 고깃점이 붙은 뼈다귀를 꺼내 기훈을 먹인다.

#17. 충배의 집, 거실 (D)

앞서의 시끄러움과는 달리 고요하기만 한 거실 내부.

어둡고 탁한 공기가 떠도는 집 안. 소파에 충배와 준오가 마주 앉아있다.

충배 (준오의 명함을 보며) 대보생명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보험 회사지 아마? 아 유... 좋은데서 일하는 사람이 이런 누추한데 까지 오고 참...

준오 아닙니다. 누추하긴요. (화제를 바꾸는) ...오기 전에 들기론 저희 직원이 뭔가 실례를 했다고...

충배 (갑자기) 이놈새끼가.....!!!

준오가 멍짓 할 때, 충배가 옆에 놓인 어린이용 책가방을 집는다.

총배 보훈이 이놈새끼가 집에 있음 나와봐야지.... (준오의 뒤쪽에 대고) 보훈아! 보훈이 거기 있냐?

준오 공부하나 본데 그냥 두십시오.

총배 손님이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으면 그게 실례지. 보훈아! 보훈이 이놈아!!

준오의 불편한 표정. 총배의 부름에도 보훈의 방엔 기척이 없다.

총배 (난처한 얼굴로) 우리 집엔 원체 사람이 드나들질 않아. 나 같은 놈은 일찌감치 글렀고, 자네처럼 훌륭한 사람이 우리 보훈이한테 몇 마디 해주면 그 놈도 뭇 좀 배우는게 있지 않을까 싶구만. 그래서 말인데.. (준오의 눈치를 살피며) 거기 방문 좀 열고 들여다 봐 주지 않겠나?

준오, 뒤를 돌아보면, 방문이 있다. 조금 열린 문틈에서 형광등 불빛이 깜박, 깜박 하고 있다.

간절한 얼굴로 준오를 바라보는 총배.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준오.

준오 (문 앞에 서서) 여기요?

고개를 끄덕이는 총배. 눈빛이 묘하게 빛나고 있다.

준오, 조심스럽게 문을 연다. 문이 열리는 틈으로 거실의 빛이 방 안을 비춘다.

뭔가 똑똑 떨어지는 소리.

준오 서서히 문을 더 연다. 그러자 천장에 사람의 형체로 보이는 것이 매달려 있다.

바닥에 떨어지는 물소리도 그것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다.

그때 형광등에 불이 들어온다.

천장에 노끈으로 목매단 소년, 보훈의 모습이 한번에 드러난다. 바지밑으로 실금하고 있다.

충격으로 외마디 신음을 흘리는 준오. 문간을 짚으며 몸을 지탱한다.

준오의 옆에 다가온 총배. 준오가 정신을 수습해 그쪽을 살피면...

총배는 놀랍게도 아들을 보기 보다는 준오의 표정을 살피고 있다!!

그때 무게에 못 이겨 부서지는 형광등. 보훈의 시체가 바닥에 떨어진다.

총배 (보훈에게 달려가며) 보훈아... 왜 이런 짓을...!!!

그들을 바라보는 준오의 얼굴, 공포로 일그러져있다.

#18. 총배의 집 앞 (N)

출동한 경찰, 터지는 플래시와 구경꾼들... 번잡한 현장 풍경이다.

경찰차 안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준오. 얼굴에 싸이렌 불빛이 어른거린다.
진중한 얼굴의 오형사와 준오가 차 안에 앉아있다.

오형사 박총배씨가 굳이 당신을 지명해서 불렀다면 전부더 아는 사이였던 것 아닙니까?
준오 오늘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절 불렀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오형사 (미심쩍은) ㅎㅎ.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집에 찾아왔더니, 그만 아들네미가 자살을
 해 있더라...
준오 자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잠시 침묵하는 오형사.

오형사 (수첩을 꺼내며 정색하는) 그럼요?
준오 처음에는 너무 놀라 멍하니 있었습디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 옆에 있던 박총배
 씨를 봤는데... 그때 분명히 저를 보고 있었어요. 자식을 보는 게 아니고요... 생
 각해보십쇼. 죽은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필 여유가 있겠
 습니까?
오형사 분명한가요? 착각일 수도 있잖아요.
준오 아닙니다. 전부더 저를 관찰하고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오형사 그건 전준오씨가 박총배씨를 봤을 때, 박씨도 우연히 당신을 쳐다본 걸 수도
 있지 않아요?
준오 아닙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fb>

준오와 눈이 마주치자 재빨리 시선을 피하는 총배. - -

* * *

준오 그 사람이 제 시선을 피했거든요.

진지한 준오의 얼굴. 차 안에 긴장감이 감돈다.

#19. 어느 옥상 (N)

어둠 속.

1인칭 시점의 화면. 계단을 오르고 있다.

계단의 끝에 낡고 녹슨 문이 있다.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면,

이곳은 건물의 옥상인 듯, 하늘과 건물 난간이 맞닿은 풍경이 펼쳐진다.
저만치, 난간에 위태롭게 서있는 소년의 모습이 드러난다.
거세게 부는 바람... 금방이라도 추락할 것 같은 소년이 무표정하게 쳐다보고 있다.

#20. 준오의 아파트 (N)

눈을 뜨는 준오. 시계는 새벽 2시 32분이다.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 방송이 끝난 화면이 지지직거리고 있다. 그대로 일어나 냉장고를 여는 준오. 맥주 캔을 단숨에 들이킨다.

#21. 지정, 회의실 (D)

피곤한 얼굴의 준오, 서류를 앞에 펼쳐놓고 앉아있다. 회의실로 남과장이 들어온다.

남과장 그래, 이야기 들었어. 별일 다 있구만... 잠은 좀 잤어?
준오 예. 한잔 마시고 잤습니다.
남과장 자살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며?
준오 (서류를 밀며) 한번 보시죠.
남과장 (훑어보며) 가족이 다 가입했군. 그런데 이 사람 뭐하는데 보험료를 다달이 80만 원이나 내냐?
준오 그게 이상합니다. 판금기술자라는데 기계도 녹이 꺼있고 일도 없어보였거든요.
남과장 흠... 그래도 돈 천만원 받자고 친자식을 죽일까?
준오 친자식이 아닙니다. 박보훈은 부인 신이화가 5년전 박충배와 재혼하면서 데려온 아이더라구요.
남과장 그렇구만... 그래.. 자네 말대로 미심쩍긴 하군. 그래도 사건성에 대해서는 경찰
이 판단하는 거니까 일단은 기다려보자고.

남과장, 자리에서 일어난다.

준오 만약...경찰이 사건을 자살로 결론내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과장 (대꾸없이, 서류를 흔들며) 일단 이 내용을 경찰에 알려. 자네 말대로 자살이 아니라면 시신에서 뭐가 나와도 나올거야.

그대로 방을 나서는 남과장. 그 모습을 보는 준오의 눈에 불안이 배어있다.

#22 검시실 (D)

어두운 검시실 안에서 보훈의 시신을 노숙한 법의관이 살피고 있다. 곁에 선 오형사.

법의관 글썸... 살인을 자살로 위장한 경우에 대부분은 목을 졸라 죽이고 끈을 매달지.
그런 경우에 정맥의 울혈로 인해 얼굴이 적자색으로 부풀어 올라. 그런데 봐.

보훈의 창백하고 하얀 얼굴.

법의관 실금의 흔적은 시신 바로 아래에 있었나?

오형사 예.

법의관 그러면 대개 자살이야. 죽이고 나서 매달았으면 실금의 위치가 시체에서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 (법의관이 시신의 목에 난 상처를 들추며) 거기다 여기 이 색
구들을 봐도 목 앞에만 깊은 흠이 생겼지 않나. 밧줄에 매달려 죽었으니 이렇게
된거지. 교살이라면 목 주변이 다 시퍼렇게 멍들었을거야.

오형사 그럼 타살의 가능성은 없는건가요?

법의관 시신만 봐선 백프로 자살이야.

#23 경찰서 (D)

강력계 내부.

준오가 놀란 얼굴로 오형사 앞에 앉아있다.

준오 (당황한)시신을 보호자에게 인도했다고요? 그러면 시신에 아무 문제 없다는 소리
잡습니까?

오형사 조사 중인 내용은 민간기업에 알릴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준오 기업이라뇨? 전 목격자 잡니다!

오형사 개인적인 관심이라면 오늘 화장한다는데 거기라도 가보시죠.

단호한 오형사의 얼굴. 준오 더 이상 알아낼게 없을 듯 심자 서류를 내놓는다.

준오 박총배의 보험관련 서류입니다. 보험 살인의 가능성이 있어요.

오형사 놓고 가세요.

준오, 자리에 놓고 급하게 자리를 뜬다. 곁에서 듣고 있던 다른 형사가 한마디 한다.

김형사 하여간... 보험회사 새끼들...어떻게 하면 돈 굴일까 해서..

#24. 벽제 화장터 (D)

유리벽 너머에서, 보훈의 시신이 고열에 불타고 있다.
바라보는 신이화. 피곤에 찌들어 슬픔조차 못 느끼는 듯한 표정이다.

#25. 어느 강가 (D)

- 강가 도로에 멈춰서는 준오의 차.
차에서 내리는 준오. 멀리 강가에 뿔가루를 뿌리는 여자의 모습이 보인다.

- 뿔가루를 강에다 흘려보내는 신이화의 모습. 고생의 흔적이 묻어나는 이화의 스잔한 얼굴.
머리카락을 날리는 그녀의 모습은 일면 아름답기도 하다.
물끄러미 신이화를 바라보는 준오. 문득 손목에 시선이 닿는다.
일렬로 나있는 날카로운 상처. 자살을 기도했던 흔적이 있다.
그때 준오의 시선을 느낀 신이화가 황급히 소매를 내린다.
유골함을 챙겨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녀, 고개 숙이고 준오의 걸을 지나칠 때...

준오 아드님 일은 참.. 뭐라 위로의 말을 드려야할지...

하지만 신이화, 그대로 준오를 지나친다.

준오 제가 아드님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 - -

멈춰서는 신이화. 천천히 돌아보면....

준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혹시 제가 도움 일이 없을까요?

물끄러미 준오의 눈을 바라보던 신이화, 그러다 준오의 뒤쪽으로 슬며시 다가오는 박충배의 모습을 본다. 서둘러 자리를 뜨는 신이화. 장애가 있는 듯 다리를 절고 있다.
측은한 얼굴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준오..

충배 여기까지 와주다니... 역시 대보생명이 좋은회사구만.

돌아보면, 충배가 누런 서류봉투를 내민다. 경계하는 눈으로 서류를 받는 준오. 서류를 열어보다 충격받는 얼굴이다.

충배 도와주게나...

아비하게 빛나는 충배의 눈이 준오의 분노한 눈과 마주친다.

#26. 회의실 (D)

서류를 훑는 남과장의 표정도 일그러진다.

남과장 이런.. 보험금 청구서를 벌써 작성했단 말야?
준오 애 뺏가루를 다 뿌리기도 전에 작성해 놔습니다. 키우는 개는 친자식 대하듯 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과장 부검도 안하고 시신을 보호자에게 인도했으니, 경찰도 자살로 볼게 뻔하군.
준오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보험가입 때부터 조사를 좀 했으면 합니다.
남과장 (잠시 고민하더니) 살인이라고 확신해?
준오 점점 더 확신이 드네요.

남과장, 난처한 얼굴로 고민한다.

준오 이대로 돈 천만원 박충배에게 쥐어주면... 그건 보험이 살인을 부추긴 꼴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도 그러셨잖아요. 보험은 위험을 줄이는 시스템이지 사람 목에 걸린 현상금이 아니라고..
남과장 그런 말 한적 없어.

그러자 준오가 책상 위에 책 한권을 올려놓는다. 남과장의 사진이 나온 책이다.

준오 137페이지 여섯째 줄에 있습니다.
남과장 (당황) 절판된건 어디서...

남과장, 책을 훑으니 밑줄쳐가며 열심히 읽은 흔적이 있다. 더불어 진지하기 짝이 없는 준오의 표정.

준오 다녀오고 싶습니다.
남과장 (어쩔 수 없다는 듯) ...알았어. 하지만 경찰이 자살로 결론을 내리면 이쪽에서도 어쩔 수 없어.

준오 (책과 서류를 수습하며) 고맙습니다.

준오,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선다.

#27. 어느 도로 (D)

뿌연 날씨. 대구 80Km라고 쓰여 있는 표지판을 지나 준오의 차가 달린다.

#28. 대구 시내(D)

노래방과 유흥주점이 밀집한 대구시내 환락가.

환락가 한쪽에 세워진 보도차 안.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들이 차 안에 앉아있다.

그때 열리는 승합차 문. 모두들 자신을 부르나 기대 할 때..

삼촌 (구석에 대고) 아줌!

한쪽 구석에서 잠을 자던 고씨가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난다.

#29. 노래방 안 (D)

화면 속에서는 반라의 여자들이 해변을 노닐고 있다.

분위기 있는 노래반주가 울려나오지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없다.

어색한 자세로 앉은 준오와 고씨.

고씨가 김센 얼굴로 준오의 명함을 본다.

준오 박총배씨가 고미자씨에게 보형을 든 걸로 압니다.

고씨 (명함을 탁자에 툭 던지며) 그랬었지... 초등학교 동창이야. 갑자기 찾아와서 온 가족이 다 보형을 든다 하길래 처음으로 학교다니길 잘했다 싶대.

준오 찾아와서 들었다... 친했나요?

고씨 친하긴... 박총배랑 친했던 사람은 없었어. 좀 무서운 애였거든.

준오 무섭다면.....

소녀의 비명소리.

닭과 오리들이 울가미에 목이 졸려 허공에 매달려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늘진 얼굴의 소년 총배.

* * *

고씨 다들 박충배 짓이라고 생각했지.
준오 왜요?
고씨 초등학교 1학년 때 충배 엄마가 목을 매 자살했거든.
준오 하지만 동물과 엄마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거 아닙니까?
고씨 나쁜소문이란게 어디 그런가? 충배 평소 하는짓보면 그런 소문이 날 만했어. 그
 뿐이 아냐...

<fb>

호수에 떠오른 여자아이의 시신. 수풀 뒤에서 소년 충배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 * *

고씨 그 애가... 충배가 죽어라 쫓아다니던 여자애였거든.
준오 박충배 짓이란 증거가 있었나요?
고씨 그게 없어. 그래서 다 소문으로 끝난거지.

고씨, 말을 마치고 일어난다.

고씨 (타이머를 보고) 20분이니까 나갈 때 한만원만 내고 가.
준오 (당황) 아니, 왜 벌써...
고씨 놀러 온 거 아니잖아?
준오 그럼...

준오, 슬그머니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데, 준오의 손을 막는 고씨.

고씨 (노려보며) 팁도 놀아야 주는거야. 내 힘으로 벌어서 사는 사람 놀리지 말고 이런
 일은 집으로 찾아와. 알았어?

당당한 걸음으로 방을 나가는 고씨.

준오, 씩씩한 얼굴로 탁자에 놓인 자신의 명함을 집는다.

#30. 동안 초등학교 (D)

- 고요하고 밝은 시골 운동장 풍경.

<동안 초등학교>라는 간판이 붙어있다.

- 교무실에 앉은 준오. 창밖을 보고 있다. 바람에 흔들리는 그네.
그 뒤로 고씨가 언급했던 동물의 철창들이 보인다. 안은 비어있다.
한쪽에서는 나이든 여교감이 쿵쿵쿵, 재채기를 하면서 캐비닛을 살피고 있다.
원가를 찾은 교감, 노끈에 매어진 종이용치를 들고 준오에게 다가온다.

교감 이젠 정신머리가 없어서 잘 기억이 안나... 당시에 애들끼리 만든 문집인데... 그
 나마 이런거라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구만.

탁자 위에 꾸러미를 놓고 끈을 푸는 교감. 라벨을 살피다 79년이라고 쓰인 라벨에서 멈춘다. 뽑으
면 앞뒤로 검은 마분지로 철이 된, <꿈>이란 표지의 문집이다. 준오에게 문집을 내미는 교감. 하지
만 준오가 받으려 하자 물리며,

교감 보험이랑게 사람이 불행해져야 움직이는 거 아닌가? 애들한테 무슨 일 있는감?
준오 (난처한) 죄송하지만... 고객신상에 관한 것은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교감이 의
 심스러운 눈빛을 보이자) 보여줄 마음이 없으시다면 억지로 볼 생각은 없습니다
 선생님.

교감 (살피듯 준오를 보다가) ...주스 사왔다고 주는게 아냐. 뽕뽕이가 좋아 보여 주는
 거지.

교감이 문집을 내밀자 미소 지으며 받는 준오. 몇 페이지 넘기다보면 박충배의 글이 눈에 띈다.

준오 복사 좀 해도 될까요?

교감 글씨가 희미해서 복사가 힘들거야. 그냥 빌려가.

준오 (미소) 고맙습니다.

교감 (머뭇대며) 고맙긴... 근데 말야... 그 왜 당뇨 있는 사람도 보험 들어줄라나?

#31. 어느 공간 (N)

- 창밖에 뜬 달.

오래된 형광등이 걸린 어두운 골방.

한쪽에 놓여있는 밥상, 다른 한쪽에 잠자리들이 들어있는 채집함이 보인다.

화면, 지저분한 방 벽지에 크레파스로 그려진 낙서를 비춘다.

할머니와 엄마로 보이는 그림들... 그 위로 흐르는 나레이션.

소년(N) 할머니가 죽은 사람은 꿈에 만나러 온다고 했는데, 꿈속에서 죽은 엄마가 나왔습
 니다. 엄마가 나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총배야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장난은

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장난을 안 칠거예요 라고 말하니까 엄
마는 사라졌습니다.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슬펐습니다.

방 한쪽에서 웅크린 소년 총배. 공책을 앞에 놓고 있지만, 손으로는 잠자리를 쥐고 있다.
천천히... 잠자리의 날개를 뜯어내는 소년 총배.

#32. 준오의 아파트 (N)

삐뚤삐뚤한 글자와 함께 제목 부분에 '6학년 1반 박총배'라고 쓰여있다.
핏자국과 함께 달라붙은 잠자리의 날개를 만져보는 준오.

#33. 지점 (D)

엘리베이터 안.
준오가 홀로 엘리베이터 숫자를 바라보며 서있다.
1층에서 멈추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박총배가 서있다.
순간 멈짓 하지만, 인사를 하려는 준오.
하지만 박총배는 준오를 모르는 사람 대하듯 지나쳐 뒤에 선다.
문이 닫히고, 긴장감이 흐르는 엘리베이터 안.
'어젯밤.... 꿈 속에... 나는 나는 날개달고...'
동요의 음조를 훑어거리는 총배.

#34. 회사복도 (D)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내리는 준오. 준오의 뒤로 총배가 따라오고 있다.
고객용 입구를 지나쳐, 직원용 입구로 들어가는 준오.
뒤에서 도우미의 어서오십시오~ 소리가 들린다.
총배가 고객용 입구로 들어간다.

#35. 지점 (D)

창구에서 고객과 상담중인 태연. 그때 태연 앞에 총배가 선다. 한참 상담 중에 나타난 총배를 마뜩
찮게 바라보는 고객. 하지만 총배와 눈이 마주치자 겁먹은 얼굴로 피하는데...

총배 그 젊은 친구... 오늘도 출장인가?

태연 (억지 미소) 예. 그게 오늘도...
준오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느새 다가온 준오가 옆 창구에 앉는다. 준오를 노려보며 앞에 서는 총배.

준오 앉으시죠. 자주 오셨다면서요.
총배 매일왔어..... 이보게 젊은친구...돈이.. 돈이 없다네. 불쌍하게 죽은 우리 보훈이 재 뿌린 자리에 꽃 한송이 갖다 놓을 돈도 없어... 보험금을 쥐...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로 말하는 총배. 고객과 직원들이 그들을 쳐다보고...

준오 앉아서 이야기 하시죠.
총배 (앉지 않고) 우리 한번도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보험료 냈어. 그런데 돈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야?
준오 아직 경찰이 아드님의 사망원인을 밝혀주지 않았습니다.
총배 원인은 자살아닌가?
준오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총배, 준오를 노려보다 장갑 낀 한쪽 손을 입으로 가져간다.

총배 (엄지손가락을 이빨로 씹으며) 또 다음에 오란 말이지...?
준오 오시지 말고 집에서 기다리시죠. 결정이 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거친 숨소리... 준오를 노려보며 엄지손가락 부분을 잘근잘근 씹는 총배.

준오, 침착한 얼굴로 장갑을 씹는 총배를 유심히 본다. 엄지손가락이 없다....

총배 자네.... ...나?
준오 예?
총배 자네 어디 살고 있나?
준오 (일순 긴장) 그것은.... 회사 방침상 알려드릴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흐르는 침묵...

총배가 노려보다 어쩔 수 없다는 듯, 그대로 뒤돈다.

준오 안녕히 가십시오.

고객용 출구로 나가는 총배.

간신히 긴장을 푸는 준오, 문득 한쪽에서 비난어린 시선으로 서있는 남과장과 눈이 마주친다. 하지만 외면하며 태연에게 다가가는 준오.

준오 저기 태연씨...

#36. 지점, 문서보관소 앞(N)

모두가 퇴근한 어두운 지점 내 풍경.

준오와 태연이 뚜벅뚜벅 어두운 복도를 걷는다.

준오 박총배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없던데, 보험에 들어있었다면 분명히 전에 재해보상금을 타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산상엔 나와있지 않던데요.

태연 해지된 계약은 전산상에 없어요. 하지만 계약서는 남아있죠.

어느 문 앞에 멈추는 그들. <관계자외 출입금지>라고 쓰인 문이다.

#37. 지점, 문서보관소 (N)

어둠 속에서 문이 열리고, 태연과 준오의 실루엣이 보인다.

캐비닛과 서랍으로 가득 찬 음침한 공간이 준오와 태연의 눈 앞에 드러난다.

자리가 부족한 듯 통로 좌우에도 서류들이 한가득 쌓여있다.

준오 으스스하네요.

태연 당연하죠. 여기 쌓인 보험관련 서류만 오만건이 넘어요. 진단서 남기고 죽었으니 행복하게 간 영혼들은 아닐테고, 여기서 귀신 봤단 직원도 있어요.

준오 귀신보다는 바닥 어디에 시신사진 떨어져 있을까봐 겁나네요.

태연 매일 보잖아요?

준오 그게.... 아직도 적응이 안 되더라구요.

그때 쌓아놓은 서류더미가 태연의 몸에 스쳐 흔들, 움직인다.

태연 어땀!

하지만 간신히 서류더미를 잡는 준오.

준오 조심해요. 이게 다 사진인데...

태연 (픽 웃고는) 그런데 박총배 그 사람 정말 보험금 때문에 자기 애 죽인거 맞아요?

준오 그런 것 같습니다.

태연 그 사람 때문에 여직원들이 다 불안해 해요. 매일.. 그것도 정확히 3시에 와서

준오 오씨 찾고, 없다고 하면 그냥 두시간이고 세시간이고 준오씨 올 때까지 기다리

 고.... 다음에 오시라고 해도 들은척도 안해요. 화장실 한번을 안가고 무서운 얼

 굴로 기다리기만 해요. 애 죽이고 보험금 타러온 사람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해 죽겠어요.

준오 다른 말씨는 없구요?

태연 전혀요. 무서운 얼굴로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요.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워요. 난동

 을 피우면 그걸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 해볼 수 있거든요. (어느 골목에서) 이쪽

 으로..

캐비닛으로 가득 찬 골목으로 들어가는 태연. 손가락으로 캐비닛에 붙은 전출지를 살핀다.
이윽고 어느 캐비닛에 멈춘 태연의 손.

태연 (물러서며) 여기네요.

고개를 끄덕이며 캐비닛을 여는 준오.

캐비닛 안을 가득 메운 서류. 텅을 훑으며 빠르게 움직이는 준오의 눈동자. 하지만 찾는게 없는 듯
하다.

준오 (돌아보며) 여기 맞아요?

하지만 있어야할 자리에 태연은 없다. 긴장된 눈으로 주변을 훑는 준오. 고요하기만 하다.

그때 여자의 단발마 비명과 함께 웅!! 무너지는 소리.

준오가 다급히 골목을 나와보면, 태연이 놀란 눈으로 서있다.

통로 옆의 서류더미를 쓰러트린 남과장이 민망한 얼굴로 서있다.

남과장 (서류를 주으며) 아... 뭐해? 와서 좀 주워!

#38. 회의실 (N)

어두운 지점 내부.

회의실만 불이 켜져있다.

회의실 탁자에 놓인 사진. 엄지손가락이 없는 손이 찍혀있다. 그 외 갖가지 낡은 서류들이 놓여있다.

준오 거긴 왜 계셨어요?

남과장 박총배 때문에 다들 불안해하는데 나라도 뭘 찾아야 할 거 아냐? (사진을 보며)
이 친구... 역시 문제 있구만. IMF때 유행했던 손가락 절단족이야.

준오 그게 뭐죠?

남과장 지 손가락 잘라서 돈 타내는거지.

준오 예? 엄청나게 아플텐데...

남과장 그래서 그 왜 야구선수들 공에 맞으면 뿌리는 스프레이 있잖아. 얼리는거. 그걸
한통 다 뿌린대. 그럼 손이 고드름처럼 되서 감각도 없다는 구만. 그걸 손도끼나
부엌칼에 채증을 실어 누르면 생선대가리 치듯이 쉽게 잘린대.

준오 (굳은 얼굴)경찰은요?

남과장 고의로 그랬다는 증거가 없었어. 우리 어쩔 수 없이 재해보상금을 지급했지. 자
넌 뭣 좀 알아냈어?

준오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가입을 스스로 찾아와서 한점하고 박총배가 어렸을 때부
터 문제가 었다는 사실 정됩니다.

남과장 (답답한 얼굴) 박총배가 매일같이 찾아왔다는거 알아?

준오 들었습니다.

남과장 보험금 받겠다고 손가락 자르고 애 죽인 미친놈이야. 그런데 왕복 세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왔다갔다 하면서 매일같이 거절당하고 있어.... 그럼 지금 그놈 속이
어떻겠나?

준오 (굳은 얼굴)

남과장 언젠가는 터질거야.

#39. 병원 (D)

터지는 울음소리. 간호사가 아이의 팔에 링겔을 꽂고 있다. 가운을 입은 민아가 옆에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다.

민아 자... 착하지 애구 우리 오현이 착하다... (옆에 놓인 그리다 만 그림을 보고) 우
와... 이게 뭐야? 우리 오현이가 그랬어? 우와... 우리 오현이 화가예요 화가..

아이를 어르는 민아. 울음소리가 그나마 잦아든다.

병실 문 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준오가 보인다. 얼굴에 미소가 배어있다.

#40. 병원 마당 (D)

따사로운 햇살. 환자와 보호자들이 햇볕을 쬐며 잔디밭에서 산책을 하고 있다.
벤치에 앉은 준오와 민아. 물끄러미 잔디밭을 바라보는 준오의 표정이 어둡다.

민아 피곤해 보여. (무릎을 가리키며) 누울래?
준오 아는 사람 보면 어찌려구 이러시나?
민아 괜찮아. 나도 준오씨 회사 가서 여자친구 있다고 광고할거거든.

준오가 민아의 무릎을 베고 눕는다.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이 된다.

민아 자기 일 이야기 하나도 안 해주는거 알아?
준오 그랬어?
민아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안 해주네.
준오 (한숨) 하면 우울해. 정말... 별 사람 다 본다 진짜.
민아 어떤 사람?
준오 (생각하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사람.
민아 나한테 말해봐. 어떻게 그러는지 다 설명해줄게. 안되면 신경성이라고 해버리지
 뭐.
준오 (미소)...너 때문에 웃는다 내가.
민아 다행이네. 애들은 나만 보면 우는데.
준오 민아야.... 그냥 오분만 이렇게 있을게.

준오, 그대로 눈을 감는다. 준오의 머리를 부드럽게 메만지는 민아.
하지만 잠드는 듯 싶었던 준오는 다시 눈을 뜬다. 걱정이 배인 눈이다.

민아 뭐야? 안 잘거면 얘기해봐. 혼자 고민하지 말고.
준오 고객정보 유출금지라네.
민아 왜 그래? 김모씨 이모씨 다 어디로 갔어? 나도 환자애기 안 해준다.
준오 아이 참...(젖다는 듯) 그러니까 고객 중에...
민아 (맞장구) 김모씨?
준오 (어두워지는 표정) ...P씨란 사람이 있어.

#41. 준오의 집 복도 (N)

어두운 복도를 걷는 준오. 긴 터널 같은 느낌이다.
집 앞에서 열쇠로 문을 연다.

#42. 준오의 집 (N)

방으로 들어오는 준오.
옷을 걸고, 자동응답 전화기를 켜면서 욕실로 들어간다.
전화기에서 들리는 안내음.

안내음 30개의 메시지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준오, 욕실에서 의아한 얼굴로 다시 나온다. 응답기를 누르는 준오. 그러자...

안내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플레이되지만, 아무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간혹 미세한 반복적 소음이 들릴 뿐이다.

안내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전히 먼첫번과 똑같은 소리다.
준오, 버튼을 마구 눌러 30번째 메시지를 듣는다.

안내음 30번째 메시지입니다.

여전히 아무소리도 나지 않는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반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준오. 준오의 기억이 살아난다.

<fb.>

박충배의 집 근처, 철길 옆에 있는 전화 부스.
기차가 지나가면서, 반복적인 소음이 발생한다.

* * *

식은땀을 흘리는 준오, 재빨리 방에서 뛰어나간다.

#43. 아파트 현관 (N)

1층 공동우편함. 거친동작으로 503호, 자신의 집 우편함을 뒤지는 준오.

#44. 지점, 회의실 (D)

남과장과 준오가 앉아있다. 잠을 못 잤는지, 수척한 준오의 얼굴.

남과장 (놀란 얼굴) 박총배가 전화라니? 번호를 어떻게 알고?
준오 미행해서 집을 알아냈나봅니다. 전화비 고지서도 훔쳤고요.
남과장 그래도 30번이나..
준오 더 했을 겁니다. 제 전화기 저장 한계가 30개 거든요. 거기다 그 집에는 전화도 핸드폰도 없어요.
남과장 그런데 어떻게?
준오 집에서 100미터쯤 떨어진 곳에 공중전화가 있어요. 전화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온겁니다...30번 넘게요...

회의실에 도는 긴장감.

남과장 아무리 생각해도 박총배 정상이 아냐. 자네는 상대하지마.
준오 하지만 이대로 두면..
남과장 (소리치는) 하지 말라면 하지마!

그때 급히 열리는 회의실 문, 태연이다.

남과장 (짜증스런) 우리 없다니깐!
태연 (굳은 얼굴로)나와보셔야 해요.

상황을 직감한 두 사람이 밖으로 뛰어나가는데, 남과장이 준오를 밀치며 홀로 나선다.

#45. 지점 (D)

남과장이 밖으로 나와 보면, 박총배가 자신의 장갑 낀 손을 깨물고 있다. 미쳤나봐, 어머니, 비명을 지르는 고객들. 모두 공포에 질린 눈이다.

하얀 장갑이 피에 젖어있고, 고통스런 표정의 박총배.
그만 돌 듯하지만, 한번 더 힘을 내 손을 있는 힘껏 깨운다.

총배 으으읍.....!!!!

뼈가 으스러지는 기괴한 소리.. 흘러넘쳐 바닥에 떨어지는 피.
피하는 사람들 속에서 남과장이 나선다.

남과장 괜찮으십니까, 여기 휴지 좀 줘...!!

태연이 휴지를 건네고, 남과장이 서둘러 총배의 손을 닦는다.

총배 고맙수.... 우리 보호이를 생각했더니 그만.... 자식 앞세운 애비가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에...

남과장 저희 의무실에 가셔서 좀 치료를....

서둘러 총배를 부축해 의무실로 옮기는 남과장.

회의실 창문으로 그 모습을 준오가 보고 있다.

몸을 남과장에게 맡긴 총배의 시선이 준오에게 꽂혀있다.

시아에서 사라질 때까지 준오를 노려보는 총배...

한편, 한쪽에서 막 소형 카메라를 집어넣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보인다. 한승규다.

#46. 카페 (D)

행인들이 스치는 노천카페. 커피 두잔을 놓고 승규와 준오가 마주앉아있다.

승규의 명함을 보는 준오. '강서대 심리학과 조교수 한승규'라고 쓰여있다.

준오 ...민아한테 들었다고요?

승규 장선생이 전준오씨 걱정을 많이 하더군요. 그래서 저한테 상당한 모양인데 들어
보니 보통일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온 겁니다. 아까 그 사람이 P씨지요?

준오 고객의 신상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수...

승규 (진지한) ..그 사람 당신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승규의 말에 얼굴이 굳어지는 준오. 하지만 이내 침착하게,

준오 하지만... P씨가 절 죽여봤자 보험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승규 그렇게 생각할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이코패스란 말 들어보셨는지요?

준오 뭘니까 그게?

승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려다 뺏어 본적 있습니까?
 준오 고양이를 싫어해서요.
 승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면 고양이는 미친 듯이 화를 내지요. 가령 주인이라 할지라도 피를 흘릴 정도로 날카롭게 할겁니다. 사이코패스는 그런겁니다. 모처럼 보험금을 손에 넣으려는데 당신이 방해를 한다고 생각하면 앞 뒤 가리지 않고 복수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승규, 책 한권을 꺼내 준오가 보기 좋게 펼친다.

기괴한 느낌의 그림이 그려져있다. 비례가 안 맞는 유치한 그림들이 페이지마다 그려져있다. 하나들 넘겨보는 준오. 강가, 집, 마을... 어딘지 알 수 없는 공간... 각기 다른 필치로 그려진 그림들.. 음산한 그림 속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얼굴에 표정이 없다.

준오 이게 뭐니까?
 승규 사이코패스로 진단된 사람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공통적으로 얼굴에 표정이 없지요?
 준오 (넘겨보며) 그러네요.
 승규 사이코패스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도 무관심하지요.
 준오 사이코랑은 다른건가요?
 승규 그렇죠. 흔히 사이코라고 말하는 성격장애는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아이를 죽이고 싶어 죽일 뿐이죠. 하지만 사이코패스는 다릅니다. 아이를 죽이면 보험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지요. 그들은 타인의 고통을 모르는데다 죄책감이나 후회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이를 죽이는 것과 같은 잔혹한 행동을 서슴없이 할 수 있지요.
 준오 (굳은 얼굴)병입니까?
 승규 저는 병으로 봅니다.
 준오 그러면 치료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승규 지금으로선 사회에서 격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준오 (공공히 생각하다) 저는 좀 이해가 가질 않네요. 물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그들도 분명 인간입니다. 사회에서 격리해버려야 한다는 것은 좀 극단적인 생각 아닐까요?
 승규 극단적이지만 확실한 방법이죠. 하지만 인간성을 과신하는 전준오씨 같은 사람들 때문에 피해만 확산되고 있는겁니다. 그래, 보험회사에 계셔보니 인간성이라고 믿을만 하던가요?

준오
 승규 사람들은 순진해서, 아직도 사람을 여럿 죽이고 하면 어린시절 불행했겠거니, 사회의 책임이려니 감상적인 소리들을 하지요. 하지만 제 경험에 그들은 그런 것과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이유 없이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사람을 물건 보듯 하는 겁니다.
 준오 그래도 불치병자나 괴물은 아닐겁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인간의 마음은 있을거예요.
 승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P씨, 아니 박총배가 전준오씨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준오에?
 승규 박총배가 사건현장에 전준오씨를 부른 것이 우연일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남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란게 나약한 먹잇감을 알아보는 독특한 감각이 있거든요.

승규, 책을 덮고 준오에게 내민다. 표지에 <사이코패스 - 사회학적 고찰>이란 제목이 붙어있다.

승규 제가 쓴 논문입니다. 답답할 때 한번 보시죠.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승규. 묵묵히 승규의 뒷모습을 노려보는 준오다.

#47. 준오의 집 복도 (N)

어두운 복도.

현관문 위쪽을 손으로 살피는 준오.

문과 벽을 잇는 형태로 전단지가 붙어있다.

준오, 안심하고 전단지를 떼어, 옆에 붙이고 문을 연다.

들어가는 준오의 손에 맥주가 잔뜩 든 봉지가 들려있다.

#48. 준오의 집 (N)

소리 30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의 그 소음이 섞인 묵음이 방 안을 흐른다.

준오가 한쪽 주방에서 맥주를 들이키고 있다.

그런 준오의 뒤쪽에, 소년의 형체가 창가에 앉아 발을 까닥거리고 있다.

준오를 어두운 시선으로 노려보고 있다.

돌아보면 형체는 사라져있다.
준오, 들고 있던 맥주병을 던다.

#49. 어느 횃집 (N)

약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횃집 풍경. 양복차림의 중년남자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다.
한쪽에 나와 담배를 피우는 남과장. 그때 남과장 옆으로 동창 한사람이 붙어 담배를 꺼낸다.

남과장 (불 붙여주며) 끊었다더니.

동창 회사에서만 끊은 척 하는거지. 남들 다 안 핀다니까 괜히 눈치뵈더라고.

동창, 한 모금 빨아 뿜어 낸 후,

동창 거기 전주오라고 새로 들어왔지?

남과장 그러고보니 대한은행 다녔었다던데 자네랑 알겠구만.

동창 (픽 웃더니) 그 새끼 조심해. 우리 회사에 고부장이라고 사람좋고 점잖은 양반이 있는데, 여직원 하나를 딸 같으니까 몇 번 이렇게...귀엽다고 쓰다듬고 그랬나 보더라고... 그런데 그 자식이 그걸 가지고 역살잡이를 했어. 그것도 모자라 감사실에 고발을 했네. 순진한건지 겁이 없는건지.. 또라이 새끼지.

남과장 (놀란) 그래서?

동창 조적이랑게 사랑하나 병신 만드는데 금방이잖아. 그래도 1년이나 버티다 나간 걸 보면 끈기는 있는 새끼야.

#50. 어느 도로 (D)

적색신호가 들어온 신호등. 사거리 한복판에 준오의 차가 서있다.

조수석에는 비타민음료 박스와 서류봉투가 놓여있다.

시계를 슬쩍 보는 준오. 막 2시 50분이 됐다. 준오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린다.

준오, 요란한 소리를 내며 차를 U턴 한다.

#51. 지점(D)

한산한 창구 풍경. 태연이 전화를 받고있다.

남과장(E) 전준오는?
 태연 고객 병문안 보냈어요.
 남과장(E) 잘했어. 박총배든 전준오든 서로 부딪혀서 좋을거 없어. 본사에서 정리 되는대로
 바로 갈테니 오늘은 태연씨가 어떻게 좀 넘겨봐.
 태연 남자직원이 하나도 없어요. 빨리 오셔야 되요.

전화를 끊는 태연. 벽시계를 보면 3시에 이르고 있다.
 태연 뿐만 아니라 모든 여직원이 고개를 들어 시계를 보고 있다.
 초침이 3시를 지나자, 자동문이 열린다. 여지없이 총배가 문 안으로 들어온다.
 다친 한쪽 손은 붕대를 감아 커져있다.
 여직원들, 절래절래 흔들며 고개를 숙인다.
 곧바로 태연에게 다가오는 박총배.

총배 전준오 있나?
 태연 오늘 안 나오십니다.
 총배 안 나온다니...
 태연 (긴장한) 몸이 좀 안 좋으셔서....

그때 열리는 자동문. 준오가 들어온다. 급히 왔는지 땀에 젖은 얼굴.

준오 오셨습니까?

준오가 들어오면서 비타민 음료병을 쓰레기통에 툭 던진다. 쟁! 울리는 날카로운 소리.
 그대로 창구에 앉는 준오.

준오 힘들게 오셨겠지만, 아직 결정이 나질 않았습니다.
 총배 (쥐어짜는 목소리) 이것봐... 정말로... 돈이 필요하다네..
 준오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총배 (떨리는 목소리) 참을 만큼 참았어.. 왜 왜...안 주는건가?
 준오 안 드린다는게 아닙니다. 경찰이 사인을 밝혀주지 않았습니다.
 총배 자네가 자네 눈으로 봤잖아? 목 매달려 있는걸 똑똑히 봤잖아. 그게 자살이
 아 니고 뭐란 말인가?

총배의 말에 눈에 힘이 들어가는 준오. 그대로 일어나 창구밖으로 나간다. 여직원들의 놀란 시선...
 이제 창구를 사이에 두고 고객과 직원이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대 개인으로, 총배와 준오가 서

서 서로를 노려보며 섰다.

준오 자살이란 것을 확인시키려고 날 부른겁니까?

총배 돈을 쥐....

준오 그 전부터 절 알고 있었지요?

말없이 준오를 응시하는 총배, 왼손을 들어 준오의 어깨를 잡는다. 총배의 부자연 스럽게 꺾인 손가락이 준오의 목줄기를 건드린다. 준오의 이마에 흐르는 땀...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총배...

총배 돈만 주면 돼... 나도 더 이상 버틸수가 없어....

준오 ...날 이용해서 보험금을 탈 생각이라면 관두십쇼.

총배 돈을 쥐야 돼...

준오 불쌍하게 죽은 애를 생각해서라도 절대로 그런일은...

총배 (비명지르듯) 도대체 왜 그래? 좋은데서 일하잖나!! 여자친구도 병원에 있잖아!!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준오의 표정. 그대로 총배의 멱살을 잡는다.

태연 (황급히 일어나며) 준오씨 안돼요!!!!

준오 (흥분한) 애를 죽이고...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어?

멱살을 쥔 채 죽일 듯이 총배를 노려보는 준오. 그대로 반항 없이 몸을 맡긴 총배의 얼굴에 미소가 스친다. 그때...

남과장 (찌렁찌렁한) 고객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

입구에 선 남과장이 노려보며 서있다.

남과장, 그대로 다가와 거칠게 준오를 밀친다.

남과장 (총배에게 돌아서서)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총배 뭐야....?

남과장 (분을 참는 듯한) 보험금 지급결정이 떨어졌습니다.

남과장의 말에 충격받은 준오.

준오를 외면한 채 '이쪽으로..' 남과장이 총배를 안쪽으로 안내한다.

허탈한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준오. 그때 들리는 태연의 목소리.

태연 다음 손님.

#52. 지점, 회의실 (D)

떨리는 눈으로 문서를 읽는 준오.

<박보훈, 1996년 10월 10일 생. 어린이 보험 '쓱쓱' 기호번호...>

보험금 지급 결정 통지서다.

남과장 본사에서 문의하자 경찰에서 정식으로 박보훈의 죽음이 자살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네. 어쩔 수 없었어.

준오 분명히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보험금까지 쥐어줘 버리면 도대체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남과장 (고개 돌리며) 어떤 시스템이든 허점은 있어. 보험도 마찬가지야.

준오를 등진 남과장을 절망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준오.

준오, 탁자에 뭔가를 놓고 그대로 회의실을 나선다.

남과장, 돌아보면 탁자에 준오의 명찰이 놓여있다.

#53. 거리 (N)

네온으로 번잡한 밤거리. 낯선 사람들이 준오를 스치고 지나간다.

#54. 병원 마당(N)

민아와 앉아있던 벤치에 앉은 준오. 낮과는 달리 병원 마당은 인적 없이 무서울 정도로 고요하다.

준오 응... 아니 그냥 걸어봤어. 회사지 뭐. 그래...

전화를 끊는 준오. 허탈한 마음으로 일어날 때, 전화벨이 울린다.

#55. 포장마차 (N)

따뜻하게 피어오르는 국물연기. 포장마차 안에 준오와 남과장이 앉아있다.

남과장 여자친구 있어?

준오 있습니다.

남과장 그럼 빨리 결혼해. 여기 있으면 불행한 사람 너무 많이봐. 어쩔땐 하루종일 시체 사진만 보는 날도 있지. 그러면 사람 못살아. 하루에 한번은 마누라 얼굴도 보고 새끼들 얼굴도 보고 그래야 버티는거지.

남과장 말을 마친 후 명찰을 속 내민다.

준오 기분으로 낸거 아닙니다.

남과장 갈 때 가더라도 일은 다 끝내고 가야지.

준오 보험금 줬으니 끝났잖아요? 좋으시겠습니까! 이제 박총배 얼굴 안 봐서.

남과장 (침통한) 끝난게 아니라니까.

준오 그럼요?

남과장 서류 봤지? 부인 신이화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부인이 죽으면 이번엔 3억 이야.

준오 (충격)!!!

남과장 이번일로 증거만 없으면 된다는 확신까지 썼으니 시간문제겠지.

준오 (굳은 얼굴) 하지만 설마 사람이...

남과장 (시니컬한 웃음) 사람?

남과장 소주한잔을 쓰게 털어넣는다.

남과장 자네 출근 첫날 태연이가 엘리베이터에서 버티는 바람에 5층까지 뛰어올라왔다면서?

준오 ...예.

남과장 남 신경써주는게 그런거야. 쉽게 갈거 어렵게 가고, 자기만 지치고. 알아주는 사람 없고. 그런데 난 자네같은 사람이 보험사정을 해야된다고 생각해. 다만...

남과장 잠시 사이를 두고 입을 연다.

남과장 망가질까봐 걱정되지.

준오 (묵묵히 바라보다) 하지만 과장님... 이번에도 우리 일 터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썩썩한 남과장의 얼굴. 그대로 준오의 어깨를 툭 치고 나선다.

#56. 거리 - 준오의 아파트(N)

굳은 얼굴로 글자를 입력하는 준오.

‘저는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해 아들을 살해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속도가 빨리진다.

‘박총배씨와 헤어지십시오. 헤어질 수 없다면 보험을 해약하십시오’

긴장한 눈으로 <인쇄>를 누르는 준오.

침대에 누운 민아가 프린터에서 종이 나오는 소리를 듣고있다. 걱정이 배인 눈이다.

#59. 우체국 (D)

뚱한 얼굴의 우체국 직원 앞. 준오가 긴장된 얼굴로 창구에 서있다.

직원 보내시는 분 주소가 없네요.

준오 그럼 우체통에 넣을까요?

직원 (뭐 알았다는 듯) 빠른걸로요?

준오 예. 그런데 본인이 받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나요?

직원 (이상하다는 눈길로) 집배원이 받는 사람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진 않아요.

준오 (난처)

직원 보내실 건가요?

망설이는 준오의 얼굴.

#60. 총배의 집 어귀 (D)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화물열차. 준오가 철로 위를 어두운 얼굴로 건넌다.

#61. 총배의 집 (D)

대문 앞에 선 준오, 안을 살핀다.

고요한 집안 풍경. 도사건이 있던 자리에 빈 개집만 남아있다.

현관문이 열리고, 박스에 보훈의 물건을 담아 나오는 신이화. 보훈의 책가방이 맨 위에 놓여있다. 물건을 내놓는 듯 마당엔 보훈의 책상, 유품들이 놓여있다. 바닥에 놓인 박스에서 뽀로로 인형을 집어 물끄러미 바라보는 이화. 아들을 그리는 듯 하다. 그 모습을 측은한 눈으로 보는 준오... 뒷짐 진 손, 편지 봉투를 꾸깃꾸깃 하고 있다.

#62. 충배의 집, 거실 (D)

묵묵한 얼굴로 앉아있는 신이화. 창밖 마당의 풍경은 잡동사니들로 황폐하다.

준오 부탁입니다. 남편과 헤어지시거나 부인 앞으로 든 보험을 해지하십시오. 이대로
 리면 부인의 목숨이 위태로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오를 바라보는 신이화의 눈은 공허하다.

이화 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나요? 남편에게 다 말할 수도 있는데.

준오 이미 사람이 죽었고, 또 한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니까요.

이화 (묵묵히 준오를 바라보다)나도 사람 죽었어요.

준오 (놀라며) ...에?

이화 초등학교 때였어요. 같은반 여자앤데...말다툼하다, 슬쩍 민 것이 그만 호수로 떨어졌어요.

준오

이화 그때 근처에서 남편이 모든걸 보고 있었지요. 남편은 평소에 말썽을 많이 피웠기 때문에 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고생좀 했죠. 그래도 끝까지 자기가 본걸 말하지 않았어요... 의지가 되는 사람이예요.

준오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자식을 잃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화 보험회사 직원이 도대체 왜 이런 걱정을 해주는거지요?

준오 회사 직원으로 온게 아닙니다.

이화 그럼요?

준오 (어두워지는 표정, 머뭇대다) 가까운 사람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이화

준오 ...조금만 신경썼어도 막을 수 있었어요.

표정이 어두운 준오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신이화.

이화 질 신경 써주는거예요? 자신을 신경 쓰는 거예요?

준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말은 다 진심입니다.
이화 절 도와 줄 수 있어요?
준오 예.
이화 그럼 남편을 죽여주세요.

순간 집 안에 감도는 정적. 준오의 얼굴이 경직된다.

준오 (일어나며) 이만 가겠습니다.
이화 (쓸쓸하게 웃으며) 그럴줄 알았어요. 우리 남편은 하루종일 선생이란 작자에게
몽둥이로 백대이백대 살이 너덜너덜해지도록 맞으면서도 끝까지 버텼어요 진심은
그런거예요... 진심도 아니면서 괜히 사람 들쭈시지 말아요.
준오 (침착하게) 필요하시면 해약동의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황급히 집을 나오려는 준오.

이화 보훈이 방에 들어가게세요.

이화의 말뜻을 몰라 머뭇거릴때.. 갑자기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는 대문.
일이 끝났는지 삼자루를 들고 오는 총배의 모습이 창으로 보인다.
당혹한 눈의 준오.

이화 남편은 의심이 많아요. 화장실 간 사이에 돌아가세요.

점차로 다가오는 박총배.
준오, 보훈의 방을 본다. 불길한 기억이 떠오르는 듯 하다.
뭔가 결심한 듯, 침착한 얼굴로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낸다.

(cut to)

현관문을 여는 총배.
소파에 앉은 이화. 준오는 없다.
삼자루를 내려놓는 총배. 그러다 문득 바닥에서 남자의 구두를 본다.
놀란 눈으로 삼자루를 쥐는 총배, 고개를 들면... 눈 앞에 선 준오.

준오 (태연히) 오셨습니까?

노려보는 총배. 하지만 준오는 침착하다.

준오 사망과 동시에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미처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총배 무슨 소리가?

준오 이번달에도 아드님 보험료가 납부되었더군요. 집에 전화도 없으시고... 해서 이렇게 찾아 왔습니다. 반환된 돈은 부인에게 드렸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려는 듯, 아내를 쳐다보는 총배. 무표정하게 창밖만 내다보는 이화 앞에 '신이화씨께' 라고 쓰인 종이봉투가 놓여있다.

준오 그럼 이만...

굳은 얼굴로 현관을 나오는 준오.

창을 통해 준오의 등을 쏘아보는 총배가 보인다.

#63. 총배의 집 인근(D)

기차길을 지나 차에 도착하는 준오.

긴장이 풀리는지 차에 기대 호흡을 가다듬는다.

그때 문득 조수석에 놓인 문집에 시선이 가는 준오.

준오, 문집을 집는다.

<꿈 - 6학년 1반 박총배>의 뒤로 몇 장 더 넘기자 <그네의 꿈 - 2학년 1반 신이화>의 글이 펼쳐진다.

#64. 동안초등학교(D)

흰색 옷이지만, 얼룩진 옷차림으로 그네를 타는 소녀. 획획 스치는 풍경,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높이 올라가지만 소녀의 얼굴은 어둡고 무표정하다.

소녀(N) 공원에 나는 혼자 있습니다. 그네를 타고 있었더니, 자꾸자꾸 속도가 붙어서 높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계속 탔더니 더욱 높이 올라갔지요. 계속 높아지고 높아져서 한 바퀴 돌 것처럼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계속 떨어져 갔습니다....

어지럽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운동장 풍경....

#65. 총배의 집 (D)

신이화의 얼굴에 창밖 풍경이 어른거린다.

봉투를 열어보고 있는 총배... 만원짜리 몇장이 나오자 봉투를 탁자에 탁, 놓고 보훈의 방으로 들어간다.

작업복을 벗어던지고 비키니 옷장을 여는 총배. 바닥을 뒤져 언더셔츠를 하나 꺼낸다.

지퍼를 올려 옷장을 닫는 총배. 언더셔츠를 입으려다 핏방울이 묻은 것을 본다. 만져보면 그대로 손에 배어나는 핏방울. 하지만 개의치 않고 셔츠를 입는 총배.

그때 뒤에 있던 옷장이 바둥바둥, 안에 있는 사람의 몸부림으로 출렁인다.

하지만 아무일 없다는 듯 방에서 나가는 총배.

#66. 준오의 집 앞 (D)

복도를 지나 현관문 앞에 선 준오.

전처럼 전단지를 조심스럽게 떼어낸다. 그때 준오의 발에 뭔가 채인다.

그때 문 밑에 놓여있었던 듯, 동그란 물체가 있다. 신문지에 싸인 주먹만한 덩어리다.

집어보는 준오. 신문지를 까보려 하는데... 전화가 울린다.

준오 여보세요?

전화를 받는 준오. 전화기 속에선 민아의 공포스런 울음소리가 터진다.

준오 나 준오야.. 진정해.. 진정해 민아야!!!!

민아 (절규) 우리 미키가.... 우리 미키가 죽었어.... 머리가 잘렸어....

울부짖음을 듣는 준오의 손.

어느새 덩어리에서 배어나온 피가 준오의 손을 적시고 있다.

#67. 뒷산 (D)

산자락에 멈춰선 준오의 차. 차 안엔 민아가 퉁퉁 부은 얼굴로 앉아있다.

한쪽에서 핏발 선 눈으로 준오가 땅을 파고 있다. 바닥에 죽은 애완견의 몸체가 보인다.

멀리, 차문이 열리며 민아가 구토를 한다.

(cut to)

트렁크에 삽을 넣고, 차 안에 들어오는 준오. 부은 눈 지친 얼굴의 민아.

민아 그 P씨란 사람일 끝난게 아니지...?
준오 (침묵하다)...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자.
민아 (핸드폰을 내밀며) 경찰에서 전화왔었어.
준오 ...왔었다고?
민아 전화해 달래. 남부서 오형사가.

#68. 개천변 (D)

도심에 뚫린 작은 개천 한켠에, 플리스 라인이 쳐져있고 경찰들이 모여있다.
오형사가 앞장서고, 준오가 따르고 있다.

오형사 시신의 주머니에 전준오씨의 명함이 있었습니다.

경찰들 사이를 뚫고 준오를 이끄는 오형사.
물에 붙어 툭툭 부은 시신이 개천변에 쓰러져있다. 눈이 실로 껴매어져있다.
역겨움에 시선을 떼는 준오.

오형사 아는 얼굴입니까?
준오 (찌증) 알다니요? 저래선....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오형사 이것들 본적 있어요?

오형사가 보여주는 것 - 비닐에 든 편지봉투다. 준오의 눈에 어리는 공포감.

오형사 이것도 좀 확인해 주시죠.

오형사가 내미는 것, 비닐에 든 디지털 카메라다. 한승규가 가지고 있던 것이다.

#69. 경찰서 (D)

경찰서 강력계.
오형사 책상 앞에 준오가 앉아있다. 옆자리에서 불통스런 얼굴로 곁눈짓 하는 김형사.

오형사 그러니까 당신 말은, 박충배가 이미 박보훈을 살해한데다가 아내인 신이화마저 살해하려 하고 있다. 한승규는 논문을 위해 박충배 주변을 맴돌다 살해당했다...

준오 제가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형사 좋습니다. 그렇다 칩시다. 현대 당신 여자친구 개를 죽인 것도 그렇고, 마누라 죽일 생각인 사람이 일부러 경찰의 이목을 끄는 짓만 골라서 하는건 왜 일까요?

준오 저에게 경고를 한 겁니다. 방해하면 이렇게 된다...

오형사 방해요?

준오 그 집에 간 적이 있어요....부인에게 위험하다고 알리기 위해서요...

어처구니 없다는 오형사의 표정. 옆에서 김형사가 끼어든다.

김형사 (끼어들며) 이 사람이... 당신 그거 무고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거 알어?

오형사 (김형사를 제지하며) 어찌됐든 간에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무슨근거인지는 모르겠지만, 박충배가 양아들을 살해했다고 믿는데서 시작되는거 아닙니까?

준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 집을 수색해야 합니다! 뭔가 있을겁니다!

오형사 (딱하다는 듯 준오를 보다가) 이쪽으로 좀 와보쇼.

#70. 경찰서, 모니터실 (D)

어두운 모니터실.

화면, '제7차 잔디포지 공공근로 사업보고'라는 제목이 보인다.

화면 빨리 돌리면, 노동자들이 잔디에 물을 주고, 땅을 파고 있다.

오형사 나라고 논거 아니에요. 애 시신에 이상이 없었어도 당신이 한 말이 걸려서 박충배 알리바이를 조사해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쇼.. 박보훈이 죽던 그 시간에 박충배가 뭐했나.

리모콘을 누르자 정상속도로 재생되는 화면.

화면에는 한쪽에서 삽을 뜨고 있는 박충배의 모습이 드러난다. 놀리는 준오의 얼굴.

오형사 작업일지에도 박충배 이름이 올라있고, (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보이는 사람들이 다 증인이예요.

오형사, 리모콘을 누른다. 튀어나오는 비디오 테잎.

오형사 죽은 사람에겐 미안하지만 알아봤더니 한승규 그 사람, 경마에 미쳐서 끌어다 쓴

사체가 꽤 되나 보인다. 물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수사 중이요.
준오 발견된 카메라에... 뭔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형사 메모리 카드가 없었어요.
준오그럼... 그 봉투... 그건 제가 그 집에 놓고 온 봉투입니다. 제 글씨가 거기...

준오에게 봉투를 내미는 오형사.
봉투에 쓰여졌던 글씨는 물에 젖어 번져있다. 준오의 눈에 어리는 당혹감...

오형사 물론 별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미친놈들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제 눈엔 공공
근로해서 어렵게 먹고사는 사람, 보험회사에서 괴롭히는 걸로 밖에 안 보이네요.

오형사, 비디오 테잎을 들고 차가운 서늘을 뿌리며 일어난다.
어두운 모니터 실에 홀로 남는 준오.

#71. 경찰서 앞 복도(D)

굳은 얼굴로 형사계를 나오는 준오. 복도 의자에 앉아있던 민아. 고개를 든다.

#72. 경찰서 주차장.(D)

준오와 민아가 차 안에 앉아 있다. 무거운 침묵이 차 안에 흐른다.

민아 (어렵게 입을 여는) 나 그 여자 만났어. ..
준오여자?
민아 전에 자기 있던 회사. 그 비서였던 여자 있잖아. 우연히 병원에서 마주쳤는데 아
직도 회사 다니다더라. 자기가 고발했던 부장이란 사람도 계속 다니고. 회사를
그만둔 건 자기 뿐이야.
준오
민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난 몰라. 하지만 자기가 남들처럼 그냥 지나쳤
으면 아무일도 없었을 것이란 건 알아. 내말이 맞지?
준오
민아 그렇지? 내 말이 맞지?
준오 민아야. 당분간 병원에 나가지 마.
민아 왜?
준오 한승규씨... 살해당했어.

민아 (충격)!!!
 준오 한승규씨 말이 맞아. 지금 나랑 얽힌 사람.... 보통사람이 아니야. 완전 미친...(답
 답하다)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민아어쩌다 여기까지 온거야?
 준오모르겠어.
 민아 우리 미키가 목이 잘려 죽고... 한승규씨가 살해당했어.. 도대체 준오씨 무슨 짓
 을 한거야?
 준오 (소리지르는) 아무 짓도 안했어!! 그냥... 불쌍한 여자 하나 살릴려고 집에
 찾 아갔어! 그게 다야!!! 그게 잘못이야? 넌 죽을게 뻔한 환자 그냥 내버려 두니!!!
 민아 내버려두지 않아. 하지만 치료를 받을지 말지 선택하는 건 환자가 스스로 할일이
 야. 그 여자가 준오씨한테 도와달라고 했어?
 준오
 민아 (울먹이며) 그런데 왜 그렇게 남의 일에 나서는거야? 난 정말 이해가 안돼... 도
 대체 뭐가 준오씨를 그렇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돼....

민아 그대로 차에서 내려 차도로 도망치듯 걸어간다.
 서있는 택시에 오르려는 민아. 그런 민아를 준오가 낚아챈다.

준오 민아야
 민아 정말 힘들어... 한밤중에 고향 지르면서 깨고! 높은데 올라가는거 무서워하고 항
 상 멍하니 딴생각에 잠겨있고... 맥주마셔야 잠...(답답한 듯) 나 병 고치는 사람
 이 야. 힘든 사람 돕고 싶어서 이거 한다고 그런데 준오씨 보면 정말 힘들어... 그냥
 웃어주는 것밖에 못하니까 정말 힘들어!!!"

그대로 택시를 타고 가버리는 민아.
 준오가 민아를 부르며 택시를 쫓는다.
 눈가에 물기가 어린 민아. 택시 뒤 쪽으로 멀어져가는 준오가 보인다.

#73. 총배의 집 (D)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빠의 꿈' 동요.
 바닥 한쪽에 운동선수용 스프레이가 잔뜩 놓여있다.
 총배가 절단기를 소제하면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다. 기분이 좋아보인다.
 씨익.. 먹이를 보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창문을 바라보는 총배.
 이화가 묵묵한 얼굴로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74. 준오의 집 (D)

메시지 수신 숫자 30개를 표시하는 전화기.
그것을 보는 준오의 눈이 분노로 떨리고 있다.
분을 못 이겨 책상 위의 물건들을 뒤엎는 준오. 책과 전화기, 어항 등이 바닥에 떨어진다.
어항이 깨지고, 금붕어들이 바닥에 튕군다.
준오, 그대로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연다.
맥주 두 캔을 연거푸 마시는 준오.
준오의 눈에, 바닥에서 퍼덕이는 금붕어들이 밝힌다.
아무그릇이나 집어 지친 얼굴로 그 쪽으로 움직이는 준오.
금붕어를 그릇에 옮겨 담다 문득, 옆에 떨어진 뭔가를 본다.
준오의 놀란 눈....

#75. 총배의 집(D)

철커덕.. 철커덕...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절단기.
바닥에 떨어진 스프레이 강통. 치익 치익.. 스프레이 뿌리는 소리와 기분 좋게 흥얼거리는 아빠의
꿈 휘파람 소리가 들려온다.

#76. 준오의 집(D)

준오가 보는 것은 펼쳐진 채 놓여진 한승규의 논문이다.
펼쳐진 면에, 무표정하게 그네를 타는 소녀의 모습이 그려져있다.
집어들어 앞뒤를 넘겨보는 준오. 전에 보았던 그림들... 목이 잘린 그림, 기괴하게 비례가 안 맞는
무표정한 그림들이 드러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그네를 타는 소녀의 그림이 드러난다.
밑에 쓰여진 설명을 읽어내리는 준오의 눈....

‘1890년대 미국의 유명한 연쇄살인마 주디 달트너가 자신의 꿈에 관해 그린 그림...’

긴장하는 준오의 얼굴... 페이지를 읽는 눈에 속도가 붙는다.

‘...사이코 패스는 타인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만큼 자신의 목숨도 소중히 않는 경향이 있다’

달트너의 신체 사진이 나온 페이지. 손목에 난 자해의 흔적이 찍혀있다.
떨리는 준오의 눈... 마지막 구절을 읽는다.

‘이 사람에겐 마음이 없다’

#77. 총배의 집(D)

차익... 소리와 함께 살갓을 하얗게 얼리는 스프레이.
스프레이를 쏜 사람의 팔목에 자해의 흔적이 나있다.
화면 서서히 움직이면, 팔을 내밀고 무릎 꿇은 박총배의 모습이 보여진다.
총배의 팔에 스프레이를 뿌리며 동요를 흥얼거리는 그녀... 무표정한 얼굴의 신이화다!!

#78. 지점 (D)

굳은 얼굴의 준오가 허겁지겁 지점 안으로 뛰어든다. 헝클어진 머리, 풀어진 넥타이... 놀란 얼굴로 쳐다보는 사람들 사이를 뚫고 태연에게 다가든다.

준오 태연씨! 신이화 전 남편 이름이 뭔지 좀 찾을 수 있어?
태연 신이화요?
준오 (다급한) 박총배 아내말야. 빨리!!

의아한 태연의 눈. 하지만 준오의 기세에 키보드를 두들기가 시작한다.

태연 64년생 고민규....(준오가 듣자마자 돌아서려 할 때) 62년생 문창식..
준오 (놀라며) 응?
태연 (굳은 얼굴) 박총배가 세 번째 결혼이에요...!!

#79. 문서 보관실(D)

- 미친 듯이 캐비닛을 뒤지는 준오.
보험가입자란에 ‘고민규’라고 쓰인 서류. 목을 매달아 얼굴이 하얗게 된 시신사진이 튀어나온다.
- 정신없이 뒤지는 서류, 이번에는 보험가입자 이름에 ‘문창식’ 이라고 쓰여있다. 역시 얼굴이 하얗게 된 남자. 팔이 잘려있다.

#80. 총배의 집 (D)

날카롭게 반복되는 소리를 울리며 작동하는 절단기. 총배가 뒤를 돌아본다. 이화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있다. 행복한 미소를 짓는 총배, 지체 없이 칼날에 팔을 내민다.

#81. 문서 보관실(D)

퍼석! 둔탁한 소리와 함께 캐비닛을 짚은 준오. 간신히 몸을 지탱한다. 비 오듯 흐르는 땀...하지만 가까스로 정신을 수습해 보관실을 나선다.

#82. 회의실(D)

얼굴이 하얗게 질린 준오, 회의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다.

준오 과장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만 남과장의 표정 또한 무섭게 굳어있다. 책상에 놓인 서류는 사람모양의 그래픽에 팔이 절단된 표시가 된 상해진단서다. 남과장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여자가 준오를 향해 고개를 돌린다.신이화다.

충격으로 얼어붙는 준오, 하지만 이화는 준오를 무시하고 남과장에게 입을 연다.

이화 얼마나 받을 수 있죠?

남과장 사고 상황에 문제가 없다면 고도장애 보험금으로 3억원이 지급됩니다.

이화 (일어나며) 빨리 처리해주세요. 저번처럼 질질 끌지 말고.

일어난 신이화가 준오쪽으로 다가온다.

그간의 처연한 미소는 간데없고, 논문에서 본 그림처럼 무표정하고 잔혹한 인상이다.

식은땀을 흘리며 신이화를 바라보는 준오. 신이화가 준오의 곁을 스친다.

준오 (간신히) 애를 죽일 때부터 날 알고 있었지요?

이화

준오 어떻게 날 안겁니까?

이화, 조용히 준오의 귓가에 입을 댄다.

이화 ...자살하는 경우 보험금이 나오나요?

공포로 커지는 준오의 눈.

<Fb>

이화가 기차길 옆 공중전화부스에서 전화를 하고 있다.

이화의 냉혹한 눈길... 기차길에서 뽀로로 인형을 가지고 노는 박보훈에 닿아있다.

* * *

벌어진 입. 커진 동공... 얼빠진 얼굴로 간신히 서있을 때... 신이화 허죽, 미소를 흘리며 준오를 지나쳐 나간다.

멀어져가는 이화를 뒤로 한 준오의 뉘 나간 얼굴....

#83. 지점입구(D)

지점을 나온 신이화가 복도를 걷는다.

그간에 그녀가 저지른 일들이 신이화의 무표정한 얼굴과 교차되며 빠르게 보여진다.

- 대룡대룡 매달린 보훈을 보며 미소 짓는 신이화.
- 우리에게 매달린 동물들을 보며 미소 짓는 신이화.
- 호수에 떠오른 여자애를 보며 미소 짓는 신이화.
- 승규의 눈을 껴매며 미소 짓는 신이화.
- 팔을 잃은 채 울부짖는 총배를 보며 미소 짓는 신이화.

소름끼치는 미소를 흘리며 걷는 이화. 화면 밖으로 사라진다.

(F.O)

#84. 어느 공간 (D)

어느 어두운 공간.

개가 킁킁거리고 있다. 축축한 느낌의 공간 속에, 박총배가 키우던 개가 케이지에서 나와 밥그릇을 달그락거리고 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진 원가가 움직인다.

장갑 낀 총배의 팔이다.

의사(N)부인이 나중에 팔을 가져오긴 했는데

#85. 병원 복도(D)

병원 복도를 걷는 준오와 남과장. 무섭게 굳은 얼굴이다.

의사(N)그게 짐승이 뜯어먹었는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어 도저히 봉합수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86. 병원 (D)

병실 내. 양팔이 절단되어 침대에 누워있는 총배. 신음소리를 흘리고 있다.

총배 아... 아파...

신이화가 총배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다.
창백한 얼굴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준오와 남과장.

이화 어디가 아파요?

총배 소... 손가락...

신이화, 어처구니 없다는 듯 총배의 목을 비틀어 잘려진 손을 보게 한다.

이화 봐요. 당신은 이제 손이 없어요. (힘들어 시선을 돌리려하자 더욱 고개를 비틀며) 똑똑히 봐요.. 손이 있나 없나.

묵묵히 그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는 준오와 남과장. 하지만 그들의 눈길에는 아랑곳없이 자리로 돌아오는 신이화.

이화 (뜨개질을 시작하며) 봤죠? 이 사람 이제 평생 일을 못해요.

말문이 막힌 듯한 준오와 남과장.

빨리 자리를 피하고 싶다는 듯, 남과장이 준오를 데리고 나가려는데...

준오 (떨리는 눈) 신이화씨.. 저는 당신을 걱정해줬을 뿐입니다...
이화
준오 당신 정말... 사람다운 마음이 없는겁니까?

서로를 묵묵히 노려보는 준오와 신이화 그때 남과장이 끼어든다.

남과장 (버티는 준오를 끌어내듯 하며) 가지...
이화 잠깐만요.

멈춰서는 남과장과 준오.

이화 (충배를 턱 짓으로 가리키며) 만약 이 사람이 죽으면... 그때 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거죠?

#87. 병원 복도 (D)

준오와 남과장이 복도 간이의자에 앉아있다.

남과장 박충배가 판금일 한다고 절단기를 조작하다 사고가 났다고 하네. 피해자인 박충배 스스로 사고라고 주장하니 경찰도 손 써 주지 않아.

준오다 제 잘못입니다.

남과장 그러면 지금껏 박충배가 벌인 일은 다 신이화가 뒤에서 조종했던 거였나?

준오 박충배가 어렸을때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에 대한 부재감이 깊은 심약한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신이화는 충배에게 엄마가 되어줬을 겁니다.

남과장 어떻게... 어떻게 일이 이지경이 되도록 한번도 신이화를 의심하지 않았어?

준오 (자책하듯 얼굴을 감싸며)아이를 화장하던 날에 저 여자 손목에서 자해의 흔적을 봤습니다. ..그때부터 아무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고통받고, 아들이 잃어버린 저 여자를 어떻게든 구해야 겠다고... 그 생각밖에 안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과장 뒤통수 제대로 맞았구만... 할 수 없어.... 이젠 보험을 강제로 해약시키는 수 밖에 없어.

준오 마용식.. 그 사람을 불러야 됩니다....

의외라는 남과장의 눈.

준오타일러서 될 여자가 아닙니다.

#88. 병원 입구 (D)

검은 양복, 한눈에 험악한 에너지를 내뿜는 마용식이 병원을 향해 걸어온다.

#89. 다시 병실 (D)

이빨이 간지러운 듯 혀로 훑는 마용식의 얼굴.

뒤에는 준오와 남과장이 서있다.

마용식을 표정 변화 없이 바라보는 신이화. 병실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도 뜨개질을 이어가고 있다. 마용식, 총배를 슬쩍보더니 입을 연다. 험박에 익숙한 목소리다.

마용식 (어처구니 없다는 듯) 거 아줌씨 마음 참 독하게 잡셨구만.

마용식, 총배에게 다가간다. 신이화는 여전히 바느질을 하고 있다.

마용식 (총배의 환부를 들고있는 책으로 툭툭 치며) 이거 마취도 안하고 했더니 엄청나게 아팠겠네. 이렇게 까지 하는 인간은 오랜만인걸. 대단해...

신이화, 저놈은 뭐냐는 듯 준오를 노려본다.

마용식 하지만 여편네가 이러면 곤란하지. 손가락 하나 정도면 수고한 값이라 치고 우리도 눈감아 줄 수 있지만 팔을 몽창 잘라놓고 3억원 내놓으라고 하면... 그건 좀 악질적이라고 생각 안 해?

신이화 (뜨개질을 멈추며) 뭐야 당신은?

마용식 아줌마. 일을 치려면 알고 치셔야지. 보험이란건 말야, 약관이란게 있어요. 함 읽어드릴까? (책을 펼치며) 피 보험자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해 고도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면책사유가 된다. 보험계약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고의... 그러니까 당신이든 남편이든 고의로...

신이화 고의라니? 증거있어?

마용식 있지. 내가 찾을 거니까. 이제부터 내가 다 찾아줄게. 재판하는 동안 상황증거는

얼마든지 나오게 되어있으니까.

신이화

재판...?

마용식

우선 아줌마가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겠지만 얼마든지 받아줄
게. 우린 시간 많으니까 얼마가 걸려도 상관없거든. 그보다 말야 형사재판이 있
는데 그건 진짜 장난이 아냐.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카... 씨발.... 팔을 몽땅
잘라? 간덩이가 부어도 단단히 부었구만!! 당신 알고나 있어? 상해죄는 10년이하
의 징역이야. 두 팔을 잘랐으니 틀림없이 10년은 콩밥을 신세라고! 10년동안 감
옥에 들어가 있고 싶어? 그러고 싶어?

찌렁찌렁 울리는 마용식의 목소리. 신이화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다.

마용식

아줌마 나 긴말 안해. (서류를 내밀며) 이걸 이 보험을 없었던 걸로 한다는 동의
서야. 고도장애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그동안 낸 보험료는 다 돌려줄게.

하지만 받지 않는 신이화. 마용식 그걸 그대로 총배의 배 위에 놓는다.

마용식

싸인하면 재판도 없고 콩밥도 없어. 나중에 다시 올테니까 잘 생각해보고 결
정하라고.

떨리는 눈으로 마용식을 노려보는 신이화.

마용식 그대로 병실을 나선다. 노려보는 이화를 뒤로 한 채, 따라 나서는 준오와 남과장.

#90. 병원 복도 (D)

화장실에서 걸어 나오는 마용식, 이빨을 훑던 치실을 복도에 버린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용식을 기다리는 남과장과 준오.

마용식

살다살다 저런 여잔 처음봅니다...이제부터 저한테 맡겨두시죠? 두 분이 계시면
저도 하고 싶은대로 못하니까요.

그럼 이만... 하듯 고개를 숙이고 움직이는 마용식.

남과장

(엘리베이터를 가리키며) 이거 안타냐?

마용식

(비상계단으로 향하며) 거기서 칼 맞은적 있어서요.

사라지는 마용식. 준오가 굳은 얼굴로 한쪽에 서있다.

남과장 (사라진 용식쪽을 보며) 지금은 저 친구에게 맡겨두세. 사람 죽인 여자지만 그래 봤자 아줌만데 어지간히 해대면 말 듣겠지. (굳은 얼굴의 준오를 보고) 왜 그러 나?

준오 박총배 팔이요... 오랫동안 공들여 계획한 사고였을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해하고 있는거 잦아요.

남과장 뭐, 그런셈이지. 근데 왜?

준오 (굳은 얼굴) 고양이한테서... 먹이를 뺏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91. 병원 (D)

흰자위가 다 드러난 섬찝한 눈으로 앉아있는 신이화.

하얀 스웨터를 뜨는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다.

#92. 총배의 집 앞 (N)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 봉투를 뒤지다 도망친다.

총배의 집 앞, 지저분하게 널린 쓰레기 봉투로 누군가 다가온다. 휴대용 손수레를 들고있다.

주변을 살핀 마용식이 쓰레기 봉투를 열어본다.

내부를 뒤지다 발견하는 것 - 스프레이 강통.

씩 웃는 마용식, 봉투들을 손수레에 싣는다. 그때 문득 들리는 인기척 소리...

쳐다보면 골목은 비어있다.

마용식, 이윽고 손수레를 끌며 이동한다.

#93. 총배의 집 근처 (N)

철길로 다가오는 마용식.

철 길 앞에 리어커 한대가 서있고, 차단기가 내려와 있다.

리어커를 살펴보면 안이 비어있다. 차단기 램프는 깨져있고 관리박스도 황폐한 모습이다. 마용식, 손으로 차단기를 올려본다. 쉽게 들어올려진다. 고장을 확신한다.

주머니에서 리모콘을 꺼내는 마용식. 철길 건너편에 주차된 마용식의 차에서 도어록이 해제되는 비 프음이 난다.

손수레를 끌고 철길을 가로지르는 마용식.

그때 갑자기 기차 경적소리가 울린다. 달려오는 기차, 움찔하며 물러서는 마용식.
물러선 마용식의 뒤에.. 어느새 식칼을 든 신이화가 서있다.
기차가 지나가고, 요란 기차 소음 속에 칼에 찔리는 소리와 처참한 비명소리가 번진다.

#94. 준오의 집 - 아파트 복도(N)

눈을 번쩍 뜨는 준오. 나쁜 꿈을 꾸듯 거칠게 숨을 몰아쉰다.
머리맡의 시계는 오전 12시 30분이다.
냉장고 문을 여는 준오. 찾는게 없는지 다시 닫는다.
식탁 위에 놓인 맥주캔. 입에 털어보지만 몇 방울 없다.
준오 그대로 아파트 복도로 나선다.

(cut to)

맥주 한 다스가 든 편의점 비닐을 들고 복도로 들어오는 준오.
집 앞에서 열쇠를 꺼내려던 준오, 문득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를 발견한다.
문을 노려보는 준오,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물러나 그대로 복도를 빠져나가는 준오. 급히 바지를 뒤적이는데... 찾는 것이 없는 눈치다.

#95. 준오의 아파트(N)

책상 위에 놓인 준오의 핸드폰.
핸드폰 너머를 훑는 카메라. 방 한쪽 어두운 구석에 귀신처럼 서있는 신이화의 모습.
신문지를 벗겨내자 길고 날카로운 식칼이 드러난다.

#96. 아파트 현관(N)

아파트 현관을 나오면, 입구 근방에 공중전화 부스가 보인다.
뛰어가는 준오. 재빨리 112를 누른다.

소리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준오가 자신의 집 창을 바라본다. 창문에 불이 켜져있다.

전화(E) 여보세요...? 여보세요?

창문에 신이화의 그림자가 스친다. 원가를 휘두르며 왔다갔다 하는 느낌이다.
망설이는 준오, 그대로 전화를 끊고 연속해서 버튼을 누른다.
그러자 몇 번의 신호음... 창문에서 움직이던 신이화도 벨소리에 놀란 듯 동작을 멈춘다.

준오(소리) 저는 지금 외출중입니다. 용건이 있으신 분은 '빠' 소리가 난 다음에...

창가의 그림자, 신이화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바로 #과 4자리 비밀번호를 누르는 준오.

안내음 전달된 메시지가 없습니다.

다시 숫자 9를 누르는 준오.
모니터링 기능인듯, 텅 빈 공간에서 울리는 잡음이 수화기를 통해 들려온다.
느리게 끄는 듯한 발소리와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온다.

신이화 무슨 원한이 있다고... 먹고 살자는 걸 방해하고...

가만히 수화기를 귀에 대고 듣는 준오.
물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띄엄띄엄 신이화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신이화 ... 바삭 굵어뒤지게 만들어 주마.... 두근뼉... 돈도 많은 회사가..... 가만 둘줄 아
나.... 뒤로 더러운 짓이나 하고... 몇 푼이나 된다고....

살기어린 목소리... 준오의 이마에 맺히는 땀방울...

신이화 잠자코 돈을 주면 되는데... 께매버릴테다... 눈을 굴리면 눈을... 입을
놀리면 입을....다 께매줄테다....왜 안와.... 돌아오기만 해봐... 돌아오기만 하면...

그때 전화기가 부서지는지, 소음과 함께 두절음이 들려온다.
소름 돋는 얼굴로 수화기를 내려놓는 준오. 그때 준오의 집 창문에 불이 꺼진다.
재빨리 화단 근처로 몸을 숨기는 준오.
이윽고 신이화가 현관에서 나온다.
세워놓았던 자전거를 타고 돌아가는 신이화.

준오, 신이화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재빨리 현관으로 달려간다.

#97. 준오의 아파트(N)

조심스럽게 자신의 집으로 들어서는 준오. 불 꺼진 어두운 방에는 모터 소음 같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스위치를 키자마자 푹! 소리를 내며 터지는 메인조명. 다른 조명을 켜자 방의 모습이 드러난다.

폐허와 다름없는 방. 예리한 칼로 긁은 듯 갈갈이 찢겨진 매트릭스와 옷. 찢어진 벽지와 깨진 식기들... 참혹하고 무서운 광경이다.

준오, 발밑에 깨져있는 핸드폰을 줍는다. 파손되어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다.

바닥에 깔린 유리를 조심하며 방을 살피는 준오. 그때 한쪽에 있던 믹서기, 타이머가 다 된 듯 멈춰선다. 동시에 모터소음도 사라진다. 붉은 빛을 띄우는 믹서기 속 내용물. 뚜껑도 안 덮고 돌린 믹서기 주변에는 금붕어 머리와 비늘이 튀어있다.

바닥에 뭔가 동그란 뭉치가 떨어져있다. 치실뭉치다.

<fb>

치실로 이빨소제를 하던 마용식.

* * *

준오, 소름 돋는 표정이다. 그러다 문득 뭔가에 생각이 닿았는지 커지는 눈...

이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밖으로 뛰어나가는데...

#98. 어느 공간(N)

지하실로 보이는 기분 나쁜 공간. 뭔가 주렁주렁 천장에 매달려 있다.

입이 막힌 듯한 여자의 흐느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전원이 꺼져있다.

#99. 아파트 입구, 전화부스(N)

공중전화를 하는 준오. 안내 멘트가 들린다.

소리 전화기가 꺼져있사오니...

다급한 얼굴의 준오, 다시 버튼을 누른다.

#100. 시신 안치실 - 복도 (N)

안치실에 누운 승규의 시신.

법의학관이 승규의 시신을 부검중이다. 옆에 있던 오형사의 핸드폰에 진동이 울린다.

전화를 받으며 복도로 나오는 오형사. 하지만 시선은 창을 통해 여전히 검시실을 향하고 있다.

오형사 예.

준오 (다급한) 저 전준오입니다! 사람이 납치됐습니다!

오형사 전준오? 대보생명?

준오 장민이라는 여잡니다. 박충배의 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출발할테니 그 쪽으로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오형사 그 사람 사고로 팔이 잘렸다고 들었는데 납치는 무슨 납치?

준오 박충배가 아니고 아내인 신이화입니다! 방금 전에 집에 침입해서 난동을 부렸는데, 여자친구가 가지고 있던 열쇠로 들어왔습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살해했는지 몰라요! 한 시가 급합니다!

그때 검시관이 시신의 위에서 원가를 핀셋으로 끄집어낸다.

밤틀만한 검은 조각 - 메모리카드다. 눈빛을 빛내는 오형사.

오형사 (검시실로 들어가며) 나 지금 바쁘니까... 경찰서 가서 사정정취부터 해요!

#101. 전화부스 (N)

준오가 수화기를 들고 소리친다.

준오 사정정취 할 시간이....(끊어진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준오, 그대로 수화기를 던지고 주차장으로 달린다.

#102. 어느 도로(N)

자전거로 달리는 신이화.

핸들에 매달린 쇼핑백 속에, 칼 손잡이가 덜그렁거린다.

#103. 어느 도로(N)

클락손을 울리며 달리는 준오의 차. 위험하게 추월하며 속력을 낸다.

#104. 총배의 집 인근 (N)

철길너머 보이는 음산한 골목.

마용식의 차 옆에 준오의 차가 거칠게 주차한다.

준오, 사물함에 손전등을 꺼내는데 차 앞으로 자전거가 휙 지나간다.

놀라는 준오, 하지만 지나간 것은 가방을 맨 청년이다.

철길 너머로 달리는 준오.

#105. 총배의 집 앞 (N)

- 어둠 속에 으스스하게 선 총배의 집. 조명이 모두 꺼져있다.

헉헉대며 도착한 준오, 주변을 살피지만 인기척은 없다.

쓰레기봉투를 밟고 담을 넘는 준오.

#106. 총배의 집 (N)

- 현관 유리가 깨지고 구멍 사이로 손이 들어온다.

자물쇠를 풀고 안으로 들어오는 준오. 집 안에 인기척은 없다.

걸음을 옮기자 마룻바닥이 소리를 낸다. 초조한 눈으로 주변을 살피는 준오.

계속 안으로 들어간다. 보훈의 방을 열어본다. 아무것도 없다. 책상에 놓인 보험관련 전문 서적들이 눈에 띈다. 비키니 옷장을 열어보는 준오.

그곳에도 아무것도 없다. 계속 다른 방을 열어본다. 하지만 민아의 흔적은 없다.

#107. 총배의 집 부엌(N)

- 부엌에 들어오는 준오. 주방에 신문지에 싸인 고깃덩어리가 놓여있다.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부엌의 한쪽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다.

계단이 긴 것으로 보아 깊은 곳에 위치한 듯 싶다.

음산한 공기를 헤치며 준오, 내려간다.

#108. 총배의 집, 지하실 (N)

조명도 없고, 음침한 지하. 입구를 열며 준오가 들어온다.

냄새가 심한지 들어오자마자 찡그리는 준오의 인상.

손전등을 켜면, 목욕탕 자리였다는 주인의 말처럼 커다란 욕조와 수도.. 환풍기등의 흔적이 보인다.

어디선가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린다.

더욱 안쪽으로 향하는 준오.

뭔가 준오의 얼굴을 스친다. 울가미다.

수도 없이 매달린 울가미를 헤치며 걷는 준오.

그중 뭔가가 준오의 얼굴에 툭, 닿는다.

총배의 개가 매달려있다. 혀를 빼물고 죽어있다.

민아가 걱정된다.

준오 민이야... 민이야...!!!

그때, 구석에서 희미한 빛에 비친 사람의 형상이 보인다.

준오가 다가가면, (신이화가 병원에서 쓰던) 하얀 스웨터를 입은 사람이다.

그것은 마용식의 시체다. 입이 껴매어져 있다.

준오 (입을 막으며) 우욱...

공포로 학질에 걸린 사람처럼 덜덜 떠는 준오.

그 때, 준오의 뒤쪽으로 미세한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린다.

지저분한 욕조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 다가가면, 신문지와 테잎으로 몸을 칭칭 감은 사람의 형체가 보인다. 떨리는 손으로 머리부근의 테잎을 떼어내는 준오다. 민아의 얼굴이 드러난다.

준오 민아야!!!

하지만 극도의 공포로 제정신을 잃은 민아, 알아들을 수 없는 신음을 내며 준오를 피한다.

준오 (민아를 흔들며) 민아야! 나 준오야 정신차려...!!

민아를 꼭 껴안아주는 준오. 민아는 실성한 눈으로 바들바들 떨 뿐이다.

준오 (민아를 들추어 업으며) 민아야... 걱정마.. 이제 여기서 나갈거야.. 걱정마..

#109. 총배의 집, 마당 (N)

바닥에 떨어진 유리 위에, 툭 떨어지는 쇼핑백.
구멍 난 현관 유리를 노려보는 신이화. 식칼을 들고 있다.
끼이익.... 현관문이 열린다.

#110. 총배의 집, 지하실 (N)

민아를 업고 서두르는 준오.
천장에 매달린 올라미들이 준오와 민아를 스친다.
전방을 확인하는 준오의 손전등. 준오가 들어왔던 지하 입구를 비춘다.

준오 민아야... 조금만 더 힘내..

출구가 얼마 안 남았다. 그때...

‘어젯밤 꿈 속에 나는나는 날개 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흥얼거림. 전에 총배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흥얼거리던 동요소리다.
그 자리에 얼어붙는 준오. 소리는 점점 가까워 온다. 계단에서 신이화가 내려오고 있다.
출구 창문으로 신이화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스르르 열리는 문. 칼을 든 신이화의 실루엣이 역광으로 서있다.
물러서는 준오. 끼이익... 닫히는 문, 동시에 신이화의 실루엣도 사라진다.
준오, 위치를 들키지 않기 위해 손전등을 끈다. 동시에 동요도 멈춘다.

어둠 속.... 스스스 스스... 신이화 특유의 끄는 듯한 발소리.
긴 식칼을 든 신이화가 하얀 눈을 빛내며 주변을 훑고 있다. 올라미가 흔들리는 사이로, 신이화가 보였다 안보였다 한다.
식은땀을 흘리며 소리에 귀 기울이는 준오. 욕조 뒤에 민아와 같이 숨어있다. 욕조 안에는 정체모를 액체가 담겨서 출렁거린다. 천장 타일에도 물방울이 맺혀있다. 천장에 매달린 물방울들이 떨어져 주기적으로 소리를 낸다.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는 준오. 그러다 문득, 욕조 액체 위로 뭔가 사람의 조각 같은 것이 떠오른다. 비명을 참으며 주변을 살피는 준오. 간신히 근처에 놓인 수도파이프가 눈

에 된다. 서서히 수도 파이프로 움직여가는 손.
칼을 빛내며 날카로운 눈으로 주변을 훑는 신이화... 준오의 손이 수도파이프에 거의 닿았다.
그때, 천장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준오의 손등에 맞고 둔탁한 소리를 낸다.
눈을 번쩍 뜨며 준오쪽을 바라보는 신이화, 칼을 치켜들고 달려온다.
재빨리 수도파이프를 잡는 준오. 하지만 바스락! 소리를 내며 부서진다. 녹슬어 삭아있다.

욕조 뒤로 다가온 신이화, 하지만 준오와 민아가 있던 자리에, 그들의 모습은 없다.
그 순간 신이화의 뒤로 뭔가 덮쳐온다.
천장에 매달려 있던 총배의 개다.
개에 부딪쳐 쓰러지는 신이화. 준오와 민아가 그 틈을 타 재빨리 출구로 도망친다. 신이화가 다시 일어난다.
민아를 이끌고 도망치는 준오. 하지만 길을 찾아 두리번거릴 때 준오의 뒤에서 이화의 칼이 내리쳐 온다. 민아의 등을 스치는 칼날... 쓰러지는 민아. 민아에게 부딪혀 쓰러지는 드럼통, 기름이 줄줄 흘러나온다.
기름 속에서 민아를 일으키느라 시간을 지체하는 준오. 그 앞에 다시금 덮쳐오는 이화.... 하지만 휘두른 칼, 천장에 매달린 올가미에 걸리고..
준오, 겁에 질려 아무거나 잡히는 걸 집어 이화를 찌른다. 긴 꼬챙이가 신이화의 눈에 박힌다.
비명을 지르며 물러서는 신이화. 꼬챙이를 뽑는 모습이 보인다.
그 사이에 준오, 민아를 업고 출구로 달린다.

출구 문을 열고 튀어나오는 준오. 민아를 업은 채 계단을 오른다.
길게만 느껴지는 계단. 저 끝에서 부엌 불빛이 그들을 감싼다. 거의 다 나왔다.
그때 문득, 계단 끝에 뭔가 놓여있는 것이 보인다.
뽀로로 인형이다.
점차로 가까워 오는 뽀로로 인형. 순간 준오의 머릿속에 뭔가 스친다.

<fb>

바퀴달린 의자 위에 올라 천장을 향해 손을 뻗는 보훈.
천장에 뽀로로 인형이 매달려있고, 보훈의 목에 올가미가 걸쳐져있다.

* * *

준오가 황급히 자신의 목을 만져본다. 올가미는 없다... 하지만 등에 업힌 민아의 목에는....
확인할 새도 없이 민아가 계단 밑으로 당겨져, 딸려 들어간다.

계단을 훑으며 달려 내려가는 민아, 미친 듯이 민아를 쫓는 준오.
민아가 지하실 입구 문턱에 머리를 부딪치고 기절한다.
달려와 민아를 살피는 준오. 그때 준오에게 드리워지는 그림자.

이화 그러게 괜히 사람 들쭉시키지 말라고 했잖아.

칼을 치켜드는 이화. 죽음을 예감하는 준오. 민아를 보호하듯 감싸 안으며 눈을 감는다.
그때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
준오가 눈을 뜨자, 사이렌 소리가 점차로 크게 들려온다.
준오를 노려보는 신이화, 분노에 찬 눈... 준오의 떨리는 눈이 서로를 응시한다.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계단입구에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화가 준오의 눈 앞에서 서서히 문을 닫는다. 마지막까지 준오를 노려보는 신이화의 눈빛도 문에
가려 지워진다.

오형사 전준오씨..?
준오 여... 여기에요!!
오형사 (순경에게) 빨리 앰블런스 부르고 지원요청해!!!
준오 안예요... 안에 있습니다...

오형사, 총을 꺼내든다.
지하실 문 틈으로 검은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다.
긴장한 얼굴로 문을 여는 오형사.
열려진 문 뒤로 보이는 지하실 내부... 온통 불길이 치솟고 있다.
불길 한 가운데에서 신이화의 형체가 어른거린다. 불 붙은 몸이 위태롭게 흔들린다.
그 모습을 공포에 찬 눈으로 바라보는 준오...
번지는 불꽃이 신이화를 삼키듯이 휘감는다.

(O)

검은집이 불꽃 속에 스러져간다.

#111. 총배의 집 - 준오의 집 (D)

시커멓게 흔적만 남은 총배의 집. 잿더미가 되어있다.
오형사와 경찰이 무너진 집 곳곳을 살피며 사체의 흔적을 조사하고 있다.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뼈를 발견하는 오형사.

그때 옆에서 웅성이는 소리...

오형사 그쪽을 보면, 까맣게 탄 여자의 시체가 놓여있다. 시체 옆에 놓인 커다란 칼... 신이화로 보이는 시체다.

그 순간, 비명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지르며 누군가 달려든다.

팔이 없는 박충배다.

만질 수 없는 시신을 만지려들며 울부짖는다.

말리는 형사들....

#112. 준오의 집 (D)

- TV화면, 장서를 배경으로 범죄심리학 교수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교수 최근에 일어났던 유명철의 연쇄살인 처럼, 이들은 죄의식이나 후회가 없습니다.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변명에 급급하고, 오히려 자신이 저지른 잔악한 범죄를 자랑스럽게 열거하기까지 합니다. 신이화 역시 반복되는 살인을 저지르면서도 후회나 자책이 없었다는 점. 거기에 살인을 보험금을 타기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 등으로 봤을때... 사이코패스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 화면은 불에 탄 검은 집 앞에 서있는 리포터를 비춘다.

리포터 신이화의 범행은 모두 이 집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맨 처음 시체가 발견된 장소 이외에도, 집의 바닥에서 놀랍게도 총 4구의 시체가 더 발견되었습니다. 범인 신씨는 모든 것이 발각되자 범행 장소에 불을 지르고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 다시 교수를 비추는 화면.

교수 사이코패스는 타인의 목숨을 소중히 하지 않는 만큼 타인의 목숨도 소중히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나 다름없는 집과 함께 자멸했을 가능성이 높지요.

초췌한 얼굴로 TV를 보는 준오. TV를 본다고 보다는, TV에 시선을 둔 채 딴 생각에 빠져있는 얼굴이다.

#113. 경찰서, 모니터실 (D)

오형사와 준오가 테이블에 앉아있다.

덱수룩한 수염. 그늘지고 초췌한 인상의 준오다. 오형사가 메모리 카드를 노트북에 삽입하고 있다.

오형사 한승규씨가 범행을 알리기 위해 마지막 순간에 삼킨 모양입니다.

노트북 화면에 보여지는 사진들...

- 대보생명으로 들어가는 사진들...
- 지점에서 난동을 부릴 때 사진들...
- 지하철로 집에 돌아가는 사진들...
- 총배를 미행했는지 검은 집의 사진이 나온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총배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이 보인다. 현관 옆에 달린 거실 창문에 무섭게 카메라를 노려보는 신이화의 모습이 보인다. 그 이후 뭘 찍었는지 알 수 없는 몇 장의 흔들린 사진들.... 이후 검은 화면.

오형사 장민아씨는 쓰레기 버리러 나오는 때를 노려서 납치한 듯 합니다. 기절시킨 다음 고물장수로 변장해서 행인들 도움도 받아가며 리어커로 옮긴 모양이에요. 그리고 장민아씨가 보는 앞에서 마용식을... (준오의 표정을 살피며) 끄찍했을 겁니다.

준오 (침통)

오형사 미안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경찰도 보험회사처럼 일 터져야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오 신이화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오형사,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내민다.

사진을 확인하는 준오. 검게 그을린 시체... 얼굴을 알아볼 수는 없지만, 손에 칼을 쥐고 있는 것이 뚜렷이 보인다.

준오 (회상하는 듯 떨리는 눈) ...멀쩡한 여자였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것도 아니고.... 도와달리는 듯한 얼굴로 질 쳐다봤었어요...

잠시 숨을 고른 후...

준오 모르겠습니다....이렇게 죽어서 다행이란 생각도 들고.. 한편으론 그래도 사람

다 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114. 공원 (D)

한산한 공원. 벤치에 놓인 빈 맥주캔들... 준오가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다.

준오 저기... 민아랑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전준옵니다. (욕을 먹는 듯 어두워
지 는 얼굴) 죄송합니다...어머니.. 그래도... 민아가 어떤지만이라도 좀... 여보세요?
 여보세요?

답답하게 전화를 끊는 준오.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115. 병원 (N)

어두운 병원 앞. 준오가 입구에 선다.

#116. 병실 (N)

복도를 걷는 준오. 조심스럽게 어느 병실 앞에 선다.

<면회사절>이란 팻말이 쓰여진 방.

준오, 조심스럽게 문을 열면... 민아가 등 돌린 채 누워있다...

잔뜩 웅크린 자세... 사건의 고통이 여전히 민아의 머릿속에 고여있는 느낌이다.

착잡한 마음으로 입을 여는 준오.

준오 민아야 나야... 준오야. (대꾸가 없자) 자...?

여전히 대꾸 없는 민아. 똑똑 링겔 약물 떨어지는 소리만 들릴 뿐이다.

준오 많이 힘들지... 내가 힘들면 네가 웃어줬는데 난 아무것도 못해주네...

민아는 미동하지 않는다. 자리에 앉는 준오.

준오 이렇게 된거... 다 내 잘못인거 알아.. 중간에 관됐으면 됐을텐데 이상하게 관둘
수가 없었어... 관두면... 그냥 누가 죽게 놔두면... 그럼 동생이 매일 꿈에 나타날

것 같았어. 형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한테 한 말도 진심이야... 그렇게 말할
것 같았어. 하지만 내가 동생에게 한 말은 진심이 아니었어..

숨을 고르는 준오... 가슴이 아린 듯 하다.

준오 온 몸이 멍투성이인 애한테... 창피하다고 했어... 그럴려면 나가 죽으라고 했
어... 하지만 진심이 아니었어.. 진짜로... 진심이 아니었어...

얼굴을 감싸는 준오

준오 누가 매일 등 뒤에서 지켜보는 기분으로 살았어... 그렇게 살면 웃음이 없어져...
너 나한테 웃어주는 것 밖에 할게 없다고 하지만.. 난 그것 때문에 살아.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

준오, 일어나 민아에게 다가간다. 민아의 메마른 어깨에 손을 얹는 준오.

준오 많이 말렸네... 좀 먹고 그래.

준오, 안타까운 얼굴로 민아의 등을 바라보다 처진 어깨로 병실을 나선다.

#117. 병실 복도 (N)

병실을 나서는 준오.

그때, 준오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벨 소리가 울린다.

꺼내들면 액정에 <민아>라고 쓰여있다.

준오 (의아한 얼굴, 전화기를 들고 돌아서며) 여보세요?

하지만 지지직거리는 소리...

준오 여보세요?

계속 지지직거리는 소리... 안테나를 세우는 준오.

민아(E) 준오씨.

준오 민아?
 민아(E) (힘없는 목소리) 응...
 준오 일어났어?
 민아(E) 응. 조금 전에... 어디야?
 준오 방금 거기서 나왔어. 다시 갈게...
 민아(E) 여길? 여기 집인데..
 준오 집?
 민아(E) 응.. 오전에 퇴원했어.

순간, 얼굴이 굳어지는 준오.

준오 저기... 민아야 좀 있다가 전화할게.

전화를 끊는 준오. 경직된 얼굴로 뒤돈다.

조심스럽게... 다시 병실 문을 여는 준오.

침대에는 여전히 민아가 누워있다.

민아에게 다가가는 준오. 천천히 민아의 어깨에 손을 가져간다.

어깨에 닿은 준오의 손... 어깨를 당겨 민아의 얼굴을 보려하는데...

그때, 병실 창문에 비친 민아의 모습... 품에서 긴 칼을 꺼내고 있다...!!

준오가 피할 새도 없이, 이불을 확 걷으며 일어나는 신이화!

칼을 휘두르며 준오를 덮쳐온다.

준오, 가까스로 내리쳐오는 신이화의 손목을 붙잡는다.

버둥대며 몸싸움을 하는 두 사람 그대로 병실 바닥을 뒹군다.

그들의 서슬에 링겔 병이 떨어져 깨지고, 신이화가 준오 위에 타고 올라있다.

칼을 든 손은 준오에게 잡혀있지만, 다른 손으로 준오의 얼굴을 마구 할퀴는 신이화.

준오의 얼굴에 날카로운 상처가 생긴다.

준오, 할퀴는 손도 움켜쥘다. 그러자 이번엔 이빨로 준오의 코를 독하게 베어무는 이화.

비명을 지르는 준오, 간신히 이화를 밀쳐내고 일어난다.

하지만 발목을 낚아채는 손, 신이화의 칼이 준오의 다리를 긁는다.

터지는 비명.... 준오, 발로 이화를 차서 떨구고 가까스로 병실에서 도망친다.

#118. 병원복도 (N)

복도로 나오는 준오... 피가 흐르는 다리를 끌고 서둘러 걷는다.

두려운 눈빛의 준오, 핸드폰을 꺼내든다.

싸움 때문인지 부서진 액정,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다.
곧바로 엘리베이터로 달러가는 준오. 버튼을 연타한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1층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간호사 부스를 살피는 준오.
옆드린 간호사... 이화의 짓인 듯, 목에 깊은 상처를 입은 채 죽어있다.
옆에 놓인 전화기를 들어보는 준오. 수화기 속에 신호가 없다.
다급해진 준오... 주변을 살피면, 복도 반대쪽에 초록색 비상등이 보인다.
바닥에 핏자국을 줄줄 흘리며 그쪽으로 걷는다.

#119. 비상계단 (N)

계단 입구에 서는 준오. 아래쪽과 위쪽으로 연결된 계단이 놓여있다.
아래쪽을 내려다보는 준오, 미로처럼 아래로 뻗은 계단이 부담스럽다. 위쪽을 보는 준오.
옥상으로 향하는 문이 보인다.
그때 뒤쪽 복도에 신이화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난간에 놓인 소화기를 집어 의지하며 올라가는 준오.
옥상 문 손잡이를 잡고 잠시 망설이다... 연다.
펼쳐지는 옥상의 풍경. 비가 오고 있다.
난간 저쪽, 빗방울 사이로 음울한 얼굴의 준석이 서있다. 거센 바람에 떨어질 것만 같다.
준석을 바라보는 준오의 표정에..... 어떤 결심이 서린다.

#120. 옥상 (N)

소화기를 움켜쥔 채 옥상 문이 달린 건물 옆쪽... 사각지대에 숨은 준오.
끼이익... 기분 나쁜 소리와 함께 신이화가 들어온다.
한발자국, 두발자국, 고양이처럼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걷는 신이화.
옥상 주변을 차가운 눈으로 살피는 그 모습, 비에 젖어 그로테스크하다.
신이화, 이내 준오가 숨어있는 곳을 살핀다.
하지만 준오는 없다.
그때, 끼이익... 문소리가 들리고...
신이화 돌아보면.. 준오가 옥상 문을 막 닫은 참이다.

준오 ...지쳤어... 도망치기도.

이화를 노려보며 선 준오. 문을 기대고 선다.

준오 집에서 발견된 여자시체.... 그건 또 누구야?
이화
준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멀쩡할 수 있지?
이화 가려워...

이화의 손이 준오에게 당한 한쪽 눈으로 향한다.

이화 벌레가 생겼어.

한쪽 눈을 손가락으로 후비는 이화. 흐르는 피... 끔찍한 소리가 들린다.
피가 흐르는 눈으로 칼을 들고 다가오는 신이화. 묘한 미소가 담긴 얼굴이다.

준오, 두려움에 소화액을 분사한다.
뿜어지는 소화분말.... 분말의 장막이 신이화의 형체를 가린다.
준오, 장막을 노려보며 소화기를 거꾸로 집어든다.
장막이 걷히기를 기다리는 준오.. 하지만..
장막에서 뛰어나오는 신이화, 준오가 움직일 새도 없이 준오의 옆구리를 찔러온다.
소화기를 떨어트리는 준오.
준오의 몸에 바짝 달라붙은 이화.
자신의 처참한 얼굴을 각인시키려는 듯 준오의 얼굴에 바짝 붙인다.
보고 싶지 않은 듯, 손을 들어 이화의 얼굴을 부여잡는 준오..

옆구리에 박힌 칼 손잡이를 돌리는 이화의 손..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면서도 준오, 신이화의 얼굴을 밀어젖힌다.
준오의 엄지손가락이 이화의 눈.. 구멍난 살갓으로 파고든다. 징그러운 소리가 들린다.

준오의 몸에서 떨어지는 신이화. 옆구리에 박힌 칼을 간신히 뽑아내는 준오.
하지만 공격을 늦추지 않는 신이화. 달려들어 손톱으로 준오를 핏댄다.
손을 움켜쥐자 다시 이빨을 사용하고.. 들고양이처럼 야생적인 움직임이다.

서로를 움켜잡고 바닥을 구르는 두 사람. 바닥에 고인 빗방울이 튀어오른다.
준오가 신이화의 위에 올라타 이화의 목을 조른다.
눈이 튀어나올 것 같은 이화의 얼굴...

하지만 이화의 손가락이 준오의 찢어진 옆구리를 파고든다.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준오.

이번엔 준오의 위에 올라탄 이화가 준오의 목을 조른다.

이화 어때... 여기까지 오면 사람 다 똑같은거야.

준오, 팔을 뻗는다... 준오의 가까운 곳에 소화기가 놓여있다.

이화 진심이 아니란 소리나 하면서 도망대려봤자..

소화기에 닿을락 말락한 손...

이화 너도 동생을 죽였잖아.

분노로 뒤집어지는 준오의 눈, 소화기를 잡아 이화의 머리를 갈긴다.

쓰러지는 이화...

하지만 칼을 집어 다시 덮쳐오는 이화. 준오의 소화기가 다시 한번 날아온다.

이화의 머리를 강타하는 소화기.

비틀, 중심을 잃고 휘청이는 이화. 입에서 피를 잔뜩 토해낸다. 그러면서도 허죽 웃으며 입을 여는 이화. 끔찍한 모습이다.

이화 이 봐... 너나... 나나... 똑같지?

다시 칼을 치켜드는 이화. 비척비척, 다시 준오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한다.

끈질기고 집요한 그 모습에 준오의 눈에 어리는 공포...

제대로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이화지만, 압도되어 뒷걸음 질 치는 준오다.

이화 (다가오며)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그렇게 멀쩡하냐고?

물러서는 준오의 등이 옥상 난간에 닿는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자 소화기를 치켜드는 준오.

이화 ...사실은 ...너도 멀쩡하잖아?

달려드는 신이화. 소화기를 든 준오의 손에도 힘이 들어간다.

그때 문득, 맞은 편 난간에 앉아 자신을 지켜보는 소년의 모습....

움짚히는 준오를 향해 내리쳐오는 칼...
묵직한 소리를 내며 준오의 어깨에 박힌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화기. 이화의 얼굴에 미소가 돋는다.
준오의 어깨에서 칼을 뽑는 이화...
다시 가슴팍을 노리며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데...
이화의 칼을 피하며 몸을 뒤트는 준오.
중심을 잃은 이화, 준오를 지나쳐 난간밖으로 떨어진다.
당황하는 준오, 순간 준오의 머릿속을 스치는 이미지..

준석이 난간 밖으로 떨어진다.
필사적으로 손을 뻗는 준오.....

허공에 매달린 신이화.
어느새 준오가 추락하는 신이화의 팔목을 잡고 난간에서 버티고 있다.
빛 속에 드러난 신이화의 팔목. 뚜렷한 자살기도의 흔적이 보인다.
힘을 보태는 준오의 다른 손이 신이화의 팔목, 상처를 덮는다.
하지만 신이화의 칼을 맞은 어깨에선 피가 많이 흐르고 있다.
정적 속에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두 사람...
빛물인지 눈물인지, 젖은 눈으로 이화를 바라보는 준오... 입을 연다.

준오 (힘들게) 나도 알아.... 넌 사람 아무리 죽여도 죄책감도.. 고통도 없다는거...

하지만 이화, 대답대신 준오의 손을 향해 칼을 휘두른다. ~ ~
준오의 손목을 긋고 지나가는 이화의 칼.
손목에서 피가 배어나고...

준오 하지만 난 아냐.

피를 흘리면서도 필사적으로 이화를 움켜쥐는 준오의 손.

준오 그게... 사람이야....

하지만 이화가 다시 칼을 휘두른다.
준오의 손목을 꿰뚫는 칼...
고통스런 준오의 얼굴... 하지만 준오의 표정은 육체의 고통보다는 구원을 거부하는 이화에 대한 안
타까움으로 절망하는 얼굴이다.

준오...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이화가 어둠 속으로 추락한다.

이화가 떨어진 어둠을 바라보는 준오의 형언할 수 없는 눈.....

준오, 몸을 추스려 난간에 쓰러지듯 기댄다.

팔목에 박힌 칼을 뽑아내는 준오.

비오는 옥상... 적막한 광경 속에 준오의 가쁜 숨소리만 서늘히 울린다.

점차로 흐릿해지는 시야...

(F.O)

#121. 병실 (D)

어둠 속. 준오의 시야가 밝아온다.

링거액과 튜브 등이 보이는 공간.. 병실이다.

창가에 준석이 앉아있다. 준석이 준오를 바라보며 웃고있다.

흐릿해지는 시야... 감았다 다시 눈을 뜨면 준석은 없다.

그때 준오의 허리를 감는 손.....

민아가 준오의 좁은 침대에 같이 누워있다.

준오의 손이 민아의 손을 꼭 잡는다.

#122. 지점 (D)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준오, 대보생명 지점 앞에 선다.

아직 완전치 않은 듯 팔에 깁스를 한 준오.

<자막 - 3개월 후>

첫 출근한 날처럼, 넥타이를 여민 준오, 심호흡을 하고 입구로 들어간다.

준오 (활달하게) 안녕들 하십니까?

소리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는 준오. 감회가 새로운 듯 잔잔한 시선으로 지점 내를 바라본다.

남과장 왔으면 보고를 해야지.

어느새 파티션에 기대 서있는 남과장.

준오 (웃으며) 예.. 저 왔습니다.

남과장 대한은행에 친구가 있는데 자네에 대해 몇마디 하두만.

준오 (경계)...무슨?

남과장 무지 끈질기다던데... 그렇게 고생하고도 또 나타난걸 보니 그 말이 맞구만.

미소 짓는 준오. 남과장이 명찰과 서류하나를 준오의 책상에 올려놓는다.

남과장 괜찮겠어?

준오 (팔을 흘깃 가리키며) 이것 말고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

준오가 안주머니에서 뭔가를 내민다. 청첩장이다.

남과장 (미소지으며) 신부 이빠?

준오 예.. 무지....

남과장 축하해. 당분간은 쉬엄쉬엄 하자고.

따스한 눈빛을 던지며 돌아서는 남과장.

문득, 창구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태연이 토라진 얼굴로 고개를 돌리는 것이 보인다.

준오 책상 위에 놓인 명찰을 본다.

천천히, 가슴에 단다.

#123. 병원/정원 (D)

따듯한 햇살. 환자들이 나와 산책하는 풀밭 정원.

준오가 정원에 서있다.

한쪽에 줄지어 늘어선 이젤 위에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다. 가족, 집, 동물 등을 그린 아이들의 그림은 해맑아 보인다.

그림들을 들여다보는 준오. 그때 뒤에서 준오를 안는 손. 민아다.

민아 재미있지?

준오 응... 애들이 그린건가봐?
 민아 응...대개 다 아픈애들이야... 그래도 그림이 하나 같이 다 밝은걸 보면 신기해.
 준오 그러네...
 민아 준오씨 나 말야... 선천적으로 사악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 사이코패스란 말도
 아직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거야.
 준오 (머뭇)
 민아 그러니까... 그냥.. 그 말을 해주고 싶었어.

준오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하는 민아. 준오,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걸기 시작한다.

준오 저녁 먹었어?
 민아 (준오를 따르며) 그것도 올 아빠 닮았어. 분위기 어색하면 밥 먹었냐고 묻는거.
 준오 남잔 다 그렇지 않나?
 민아 (웃음) 그런가?

미소 지으며 걷는 두 사람. 전시공간을 빠져나가는 차에...
 문득 마지막에 놓인 이젤에 시선이 닿는 준오.
 그네를 탄 무표정한 소녀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이다. 제목에 <꿈>이라고 되어있다.
 떨려오는 준오의 눈...
 그런 준오와 그림을 번갈아보며 불안을 느끼는 민아.

민아 자기 왜 그래?
 준오 이거 그린 애... 어떤 애야?
 민아 어떤 애라니?

준오, 멍하니 주변을 둘러본다. 꽤많은 환지들과 방문객들이 흩어져 산책을 하거나 그림을 보고있다.

민아 자기..

준오, 사람들 틈에서 준오를 바라보는 소녀 한명을 발견한다.
 머리가 터지고, 팔이 없는 괴상한 인형을 거꾸로 들고 선 소녀... 음산한 인상이다.
 멀리서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 소녀의 얼굴에 깃드는 묘한 미소.
 서서히.... 공포감으로 일그러지는 준오의 얼굴...
 소녀, 사람들 사이로 사라지고...

바닥에 몸이 터진 인형만 남아있다.

END

06.09.21